

1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09.30 (-1.06)	765.06 (-0.73)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897 (+0.017)	1370.10 (+7.50)

e커머스 힘주는 빅테크... 전자상거래 시장 격변 예고

m-커버스토리

온라인 쇼핑고객 잡아라

e커머프 플랫폼 할인전 앞두고 네이버·카카오 등 고객 유치전 초개인화 선물추천 서비스 등 AI 기술 접목으로 편의성 강화

기존 전통적인 채널 업체들의 고객 유치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도 e커머스 사업 다각화를 통해 공격적인 고객 확보전에 뛰어 들었다.

SSG, G마켓, 롯데온, 11번가 등 유통분야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분야까지 e커머스 사업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주요 업체

NAVER kakao

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1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e커머스 플랫폼의 할인전이 본격 시작되는 11월에 앞서 네이버, 카카오 등 비전통적인 e커머스 채널들의 고객 유치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유통 업체들이 고객과 셀러 확보를 위해 멤버십을 강화하고 나섰다. 네이버, 카카오는 AI 기술을 활용한 쇼핑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쇼핑 편의성을 높여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지난 9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개인화 상품 추천·검색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스토어'를 선보였다. 네이버플러스스토어는 취향에 맞는 상품 혹은 비슷한 성별·연령대가 많이 찾는 제품을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해 2분기 실적발표회를 통해 "기본 최저가 중심의 가격비교 서비스에서 나아가 네이버만의 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쇼핑 서비스를 하반기 중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도 자사 커머스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카오톡 선물하기에 초개인화 추천

서비스인 'AI 선물탐험'을 운영 중인 카카오는 향후 e커머스 분야에 AI를 접목시키는 것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는 앞서 AI 이미지 검색 서비스인 '직책렌즈'를 선보였다. 셀럽들이 입은 옷, 악세서리 등을 AI 이미지 검색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고객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처럼 AI 기술 접목을 통해 커머스 사업을 강화하는 이유는 티메프 사태를 통해 기술력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제약 & 바이오포럼'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 반려동물 위한 헬스케어

<메트로경제>가 10월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를 주제로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고, 2023년엔 전체 인구의 30% 가량인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7년 6조원 규모로 급팽창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란 질문을 새로 추가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을 위한 음식과 건강관리식품에서부터 치료제,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치약, 샴푸와 같은 세정제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치료제가 동물에게 안전하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통해 반려동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의 기술동향을 점검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계뿐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가구에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24제약&바이오포럼
-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제 :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 기조강연 :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 강연 :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최진식 그라스메디 대표이사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이사 유성기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 대표 임윤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원장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4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한강 "지난 일주일, 특별한 감동"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지난 일주일,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강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린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믿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소회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강(가운데)이 정몽규 HDC 회장(오른쪽),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부인 박영자씨(왼쪽) 등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담대 금리 상단 7% 육박

은행권, 조달비 상승·당국 압박 우대금리 내리고 가산금리 올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했음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에 육박하고 있다.

은행권 조달비용이 상승했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로 8월(3.36%) 대비 0.04%p 상승했다. 코픽스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헌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코픽스가 상승 기조로 돌아서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일부터 상향됐다.

5대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날 기준 연 4.57~6.67%로 집계되면서 금리 상단이 연 7%에 다가서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1~6.72%를 기록하면서 연 7%에 육박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주담대의 경우 6개월물 변동형 상품 금리는 연 4.49~7.28%로 이미 상단이 7%를 넘었다.

한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낮추고 가산금리를 조절하면서 대출 금리는 높아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 금리인상 압박을 가했고, 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2차례에서 최대 5차례까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동훈 "풀뿌리 민주주의, 여당이 압도... 실력 발휘해달라" /사진 뉴스스
▲ 21일 서울서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관계 격상 후 첫 개최

▲ 홍준표 "한동훈, 원조 김여사 라인... 주변 '칠상시'나 제거하라"
▲ 판사들 '사형' 선고 피하는 분위기?... "대법원, 사형에 엄격한 기준"



▲ 조태열, 유엔개발계획 총재 면담...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사진 뉴스스
▲ 송형근 도의원 "전남도, 우주항공 독립부서 신설해야"

종이스틱·유리용기 등 친환경 혁신... 지속가능 산업 도약

K뷰티 돋보기

〈중〉제조업체 전성기 맞이

한국콜마 연우 종이스틱 IDEA 금상
 펌텍코리아 올해 최대 실적 전망
 에스엠씨지 고품질 유리용기 생산

K뷰티가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자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 다양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K뷰티 전성기를 맞고 있다.

1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한국콜마의 자회사 연우는 국내 대표 화장품 용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14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국내 매출은 약 769억원, 해외 수출은 643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 45%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억원의 영업손실에서 흑자전환했다.

이러한 호실적에 대해 한국콜마는 연우의 주요 고객사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대형 뷰티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인디브랜드 거대 확대도 매출 개선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연우 핵심 제품군은 펌프류, 튜브류, 견본품류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펌프류 용기는 연우 대표 제품군으로, 연우는 국내 최초로 외부 공기 유입을 완벽 차단한 ‘에어리스 펌프’를 개발해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특히 연우는 최근 ‘2024 미국 IDEA



샘플&프로모션용 미니 사이즈 제품. /펌텍코리아



연우 ‘종이스틱’

/한국콜마

어워드’에서 ‘종이스틱’으로 금상을 받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종이스틱은 직관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용기다. 종이로 구성된 몸체를 한 올씩 벗겨서 사용해 내용물과 용기의 크기가 함께 줄어드는 직관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에코 앰플, 에코업앤다운, 듀싱글 콤팩트 등으로 수상 실적을 쌓았다.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고 있는 펌텍코리아는 올해 최대 실적으로 연간 매출 3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선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해 1624억원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늘었다.

펌텍코리아는 앞서 지난 2023년에는 연결기준 매출은 2845억원을 기록해 전년 2366억원 대비 20.2%의 성장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353억원으로 전년 265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펌텍코리아 제품군은 펌프부터, 튜브, 콤팩트, 스포이드까지 폭넓게 구성됐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펌프는 올해 상반기 1199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펌텍코리아에 따르면 인디 브랜드의 대량 발주, 메이저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들의 생산 외주, 신규 해외 고객사 수주 등이 매출 성장에 주효했다. 펌텍코리아는 생산 시설을 확보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펌텍코리아는 오는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제4공장을 건설 중이다.

또 리필형, 높은 재활용 등급 등을 적용한 친환경 제품을 내놓아 국내외 화장품 산업의 환경 관련 규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화장품 유리용기 제조사 개발 생산(ODM) 기업 에스엠씨지는 코스타다 우회상장을 추진하며 외형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에스엠씨지는 지난 11일 스펙(기업인수목적회사)상장을 앞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키움제7호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타다 상장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스엠씨지는 지난 2023년 매출액 약 374억원, 영업이익 약 27억원을 기록했다.

에스엠씨지는 지난 1998년 소망유리란 이름으로 설립된 이래 유리용기를 제조하는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고품질 유리용기 제품 생산부터 후공정까지 제공한다.

에스엠씨지는 로레알, 존슨앤존슨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최근 떠오르는 국내 인디 브랜드들의 파트너사로서 다양한 맞춤형 몰드를 주문 설계하고 있는데, 특정 고객사에 의존하지 않는 다

변화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탈 탄소 흐름 속에서 플라스틱 대비 유리용기의 수요 확대는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스엠씨지는 ‘화장품 유리용기 전용’ 전기 용해로 시설을 국내 최대 규모로 갖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뷰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 용기, 원료, 소재 등은 뷰티 산업에서 필수 부자재이면서도 완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단순한 준비물이 아니라 안전성, 기능성, 심미성, 사용자 편의성 요충에는 친환경 요소까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제조 기업들도 (고객사인) 뷰티 브랜드 정체성, 급변하는 소비자 유행, 시장의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을 찾으려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WeConnectScience

충전 한번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야

과학이다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도 자유롭게 달리게 하자
 과학으로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상목 “韓-필리핀 FTA 속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기술유출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정부가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기술유출 관련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체코 원전건설 및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재유출 처벌 규정 신설,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양해각서)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e커머스, 통큰할인·수수료 면제로 고객·셀러 다 잡는다

티메프 붐 불신 지운다

티메프 사태로 온라인 e커머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 채널 기업들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티메프 사태 이후 경쟁 e커머스 플랫폼의 신규 가입자들이 늘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e커머스 업체들은 언제든 이탈할 수 있는 회원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고객·셀러 유치를 위한 멤버십 혜택, 셀러 지원 등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티메프 사태에 고객도 셀러도 대이동... 한달만 최대 16% 증가

17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롯데온은 지난 7월 새롭게 가입한 고객이 6월 대비 10%, 8월의 경우 7월 대비 16%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8월은 여름 휴가시즌으로 대표적인 비수기임을 감안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롯데온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셀러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롯데온을 선택하는 계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롯데온, 안정적 플랫폼 신뢰 확보 SSG닷컴, 빠른배송·마케팅 지원 11번가, 페스타·광고포인트 제공

G마켓은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 기준 유료 구독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신규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172%) 증가했다. 최근 멤버십 연회비를 인하하고, 신규 혜택을 추가한 점이 주효했다.

SSG닷컴의 ‘신세계 유니버스 쓱배송 클럽’의 이달 첫째주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전월 대비 30% 상승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셀러들의 수도 늘었다.

11번가는 입점 셀러수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7월 기준, 11번가 입점 신규 판매자 수는 전월 대비 16% 이상 늘었다. 11번가의 판매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 ‘오리지널 셀러’의 경우, 지난 7월 프로그램 참여 신청 판매자 수가 올해 1분기(1~3월) 평균 대비 75%가량 급증했다.

롯데온에 새로 입점한 판매자 수도 지난 8월에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불안정한 e커머스 사업자 안전책부터... 셀러 유치 나서

e커머스의 생태계를 다시 안정화시키기 위한 업계들의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생태계 안정화 일환의 첫 타격은 e커머스 사업자, 즉 셀러다.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온라인 신규 입점 셀러수수료 0%’ 이벤트를 실시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플러스가 실시한 온라인 신규 입점 셀러 수수료 0% 지원 이벤트는 홈플러스 택배배송에 신규 입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90일간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 판매자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



쿠팡 WOW 할인데이 관련 이미지.



/쿠팡 ‘신세계 유니버스 쓱배송클럽’ 관련 안내 이미지.

/쓱닷컴



고 고객들의 상품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기획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신규 입점 셀러 수수료 0% 이벤트’를 진행해 판매자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지원하고 상생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택배배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에게는 편리하고 판매자에게는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온라인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11번가는 지난달 11일까지 ‘굿 세일 위크’ 기획전을 통해 티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판매자 지원에 나섰다.

쿠팡, 로켓배송 등 고객 혜택 강화 G마켓, 멤버십 혜택에 고객 3배 ↑ 홈플러스, 수수료 면제 셀러 유치

구체적으로 11번가는 기획전 참여 셀러에게 100만원 상당의 광고포인트를 지급해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펼쳤다. 11번가에 처음 입점하는 셀러에게는 11번가의 신규 셀러 지원 혜택 명목으로 60만 광고포인트를, 기존 셀러에게는 50만 광고포인트를 추가 지급해 중소소상공인이 최대 210만원 상당의 광고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획전 참여한 셀러들은 11번가 전담MD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11번가의 지원을 받은 셀러들은 신선·가공식품, 디지털기기·전자제품, 골프용품, 공구, 안마기, 장난감 등의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특가에 소개한 바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판로 확대가 필요한 중소판매자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행사”라면서 “상품 판매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셀러들의 위기 극복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쓱(SSG)닷컴 역시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마케팅 지원 활동을 수행한

8월 신규 입점 셀러 ↑ 8배	택배배송 매출 ↑ 84%	8월 인기 상품 ↑
------------------	---------------	------------

홈플러스 입점 수수료 0% 행사 관련 안내 이미지.

/홈플러스

바 있다. 지난 3월 신규·중소 브랜드가 스타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브랜드 마크’ 프로그램을 새롭게 공개했으며 7월에는 판매 데이터를 협력사가 조회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셀러 리포트 3.0’을 출시했다.

쓱닷컴 관계자는 “메타 협력광고가 협력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 브랜드가 상품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소비자 잡아라... 업체들의 페스타 전쟁 셀러에 이어 다음은 소비자다. 업체들은 각종 페스타 행사를 통해 가격 할인전을 수행하는 등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쿠팡은 지난 9월 ‘추석 페스타’를 열고 최대 50%의 할인 혜택 행사를 진행했다. ▲메인특가관 ▲선물관 ▲장보기관 ▲연휴준비관 등 다양한 콘셉트의 기획관을 준비해 고객 쇼핑 편의를 제 공함과 동시에 식품, 뷰티, 가전 등의 카테고리 선물세트들을 할인된 가격에 선

보였다. 추석 이후에는 4일간 진행되는 ‘WOW 할인데이’를 열고 로켓프레시(신선 식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 총 1만여개에 이르는 상품들을 할인가에 선보였다.

롯데온은 오는 23일까지 소비자유치를 위해 연말 온라인업계 쇼핑 축제인 ‘롯데온 세상 쇼핑 페스타’를 진행한다. 롯데온의 입점 셀러는 물론, 롯데백화점과 딜데마트의 입점 브랜드도 참여해 할인과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롯데온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원의 행복’ 럭키박스 행사 기간 특정 시간 동안 할인 상품을 제공하는 타임딜 행사 등을 진행한다.

롯데온 관계자는 “롯데온이 롯데 계열사 상품을 가장 좋은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연중 최대 규모의 행사를 준비했다. 최대 9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롯데 패밀리 상품을 부담없이 체험해볼 수 있는 연말 쇼핑 축제인 만큼, 부담없이 즐기기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유통업계, 네카오 e커머스 강화 예의주시

» 1면 ‘e커머스 힘주는...’서 계속

뿐만 아니라 e커머스는 매출 비중이 높은 주력 사업인데다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향상시키면 성장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2분기 네이버의 e커머스 매출(7190억 원)은 전체 매출의 27.5%를 차지했고 카카오의 광고·e커머스 매출(5139억 원) 역시 전체 매출의 25.6%를 차지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티메프 사태 이

후 테무, 알리익스프레스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e커머스 사업 강화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전년 대비 e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커머스의 매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티메프 사태를 겪고 나서 e커머스 관련 사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경쟁을 앞으로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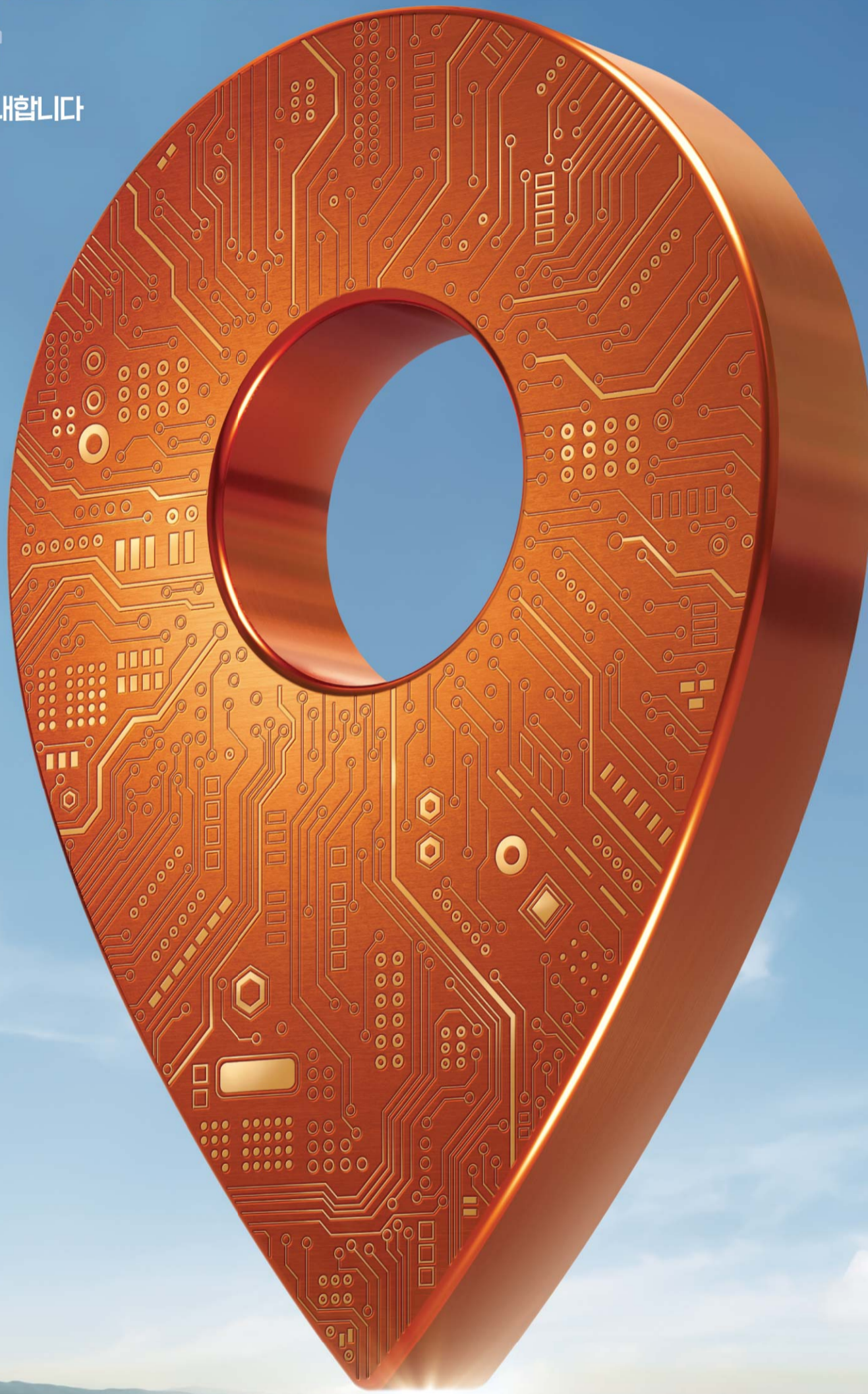
/최빛나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AI가 만들 미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완성됩니다

SK하이닉스가 미래로 안내합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與 ‘명태균 방지법’, 野 ‘김건희 특검법’... 같은 날 발의

與, 공직선거법 처벌 전력 있을 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 수행 규제 조사결과 왜곡행위 처벌대상 확대
野, 김건희 여사 13가지 의혹 규명 “與, 적극적으로 협조 강력 촉구”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브로커에 의한 공천 개입을 방지하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팀 한동훈’으로 나선 박정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관에서 정치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방지법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 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처벌 전력이라도 있는 데도 신설 법인을 설립해 여론조사 업무를 해왔다.

박정호 의원은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론조사기관이 다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하며, 새로 설립된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어 규제 회피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이 개정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이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여론조사기관이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실제서와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제출토록 하

여 결과조작을 사전예방하고 여심위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를 ‘명태균 방지법’을 소개하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김여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직전에 야권 단일화와 정권 심판론을 이 선거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등 굉장한 판을 키운 선거였다”며 “그 업체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몇 퍼센트 차로 이기는 결과를 냈다. 그런데, 결과는 22%포인트가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우리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터져나오자, 수사대상에 이를 포함해 13가지의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발의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13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불기소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나 남용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에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범죄를 차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텃밭’ 지키 與野... 혁신당은 입지 타격

與, 인천 강화군수·부산 금정구청장
野, 전남 곡성·영광군수 당선자 배출
혁신당, 선거 전략·조직력 등서 밀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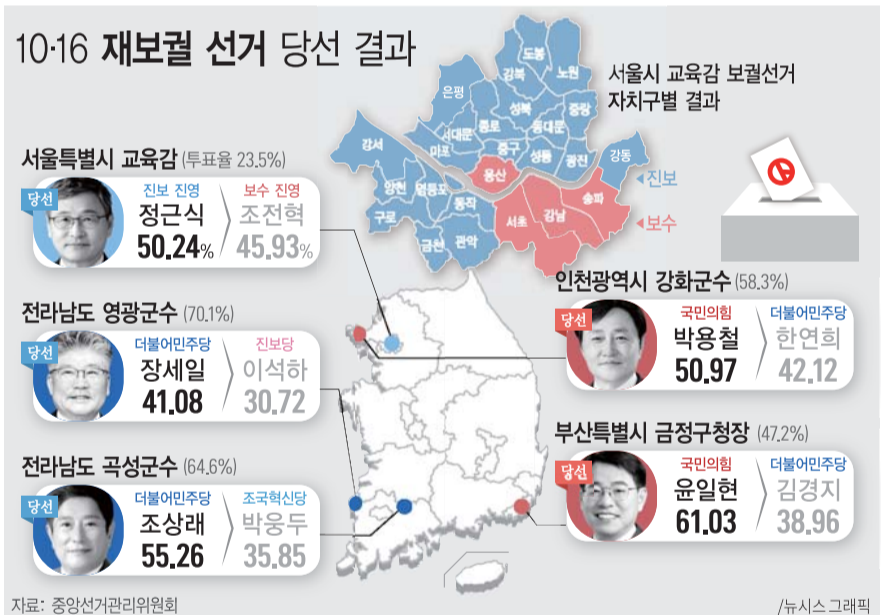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 4곳 중 각각 2곳씩 승리했다. 당적이 없는 서울교육감의 경우 진보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텃밭을 지켜내며 당내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조국 대표의 리더십에 경고등이 켜졌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16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영광군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각자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승리한 것으로, 이번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힌 곳은 부산 금정구다. 전임 구청장의 사망으로 재선거를 하게 된 금정구는 부산 내에서도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 지방선거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보수계열 정당 후보가 내리 구청장에 당선된 곳이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13대 총선부터 보수계열 정당이 독식한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 재·보선에서 부산 금정구가 격전지로 꼽힌 이유는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있었으며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여당 안팎으로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곳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이에 한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5차례나 부산 금정구를 찾아 ‘지역일꾼론’을 내세우며 ‘제2의 정권심판’을 들고나온 야권에 맞섰다.

또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공식 사과에서부터 공개 활동 자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반대, 대통령실내 김건희 라인 인적쇄신까지 요구하는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 덕분인지,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에서 지난 4월 총선 때보다 더 큰 격차로 민주당을 눌렀다.

한 대표가 ‘텃밭 수성’에 성공하며 당분간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중 대통령실에 대해 ‘쓴소리’를 한 만큼, 향후 당 운영은 물론 당정관계에서도 발언권이 높아질 전망이다.

야권의 격전지로 꼽히던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특히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이 치열한 3파전을 펼쳤다. 전남 영광군은 민주당의 ‘텃밭’이라

는 인식이 있지만, 정작 지난 8차례의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영광군민들은 무소속 후보를 3차례나 선택했다. 이 지역을 다른 당에게 내준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인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몇 차례나 지원 유세를 했다. 결국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41.08%로 당선됐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를 얻었다.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텃밭을 수성한 이 대표는 내달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전혀 내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으로 출발한 만큼, 이번 재·보선을 통해 지역 조직을 강화하고, 호남권에서 대안 정당이 되려 했다. 그러나 ‘관성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하는 지지층과 ‘선거 전략, 조직력’ 측면에서 밀렸다는 평가다.

李 “농작물 생산조합에 수입권 주는 것도 방법”

고랭지 배추밭 방문해 직접 수확
기후위기·인력난 등 문제해결 강조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치솟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직접 고랭지 배추밭을 배추를 수확하고 현장 농민들과 소통하며 기후위기·생산비 안정·인력 수급 등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인근 배추밭을 방문해 직접 배추를 수확했다. 민주당에선 배추 수확 현장에 어기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송기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가을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여름배추 주산지에서 피해가 커서 배추 한 포기 소매가가 2만원에 육박하는 ‘금배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배추 수급 동향과 지난 20년간의 생활물가 조사 자료를 분석해 11월의 배추 소매가격이 포기당 평균 5300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2.5% 비싼 가격이다.

이주한 평창 진부 농협 조합장 배추 수확 이후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 배춧값 폭동의 주요 원인은 ‘이상 기후’라고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정치권에 ▲농가 수익성 하락에 대응하는 농가 경영비 지원 대책 ▲이상 기후에 알맞은 종자 개량 ▲농업인력공단 설립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인력 교육 및 수급 ▲휴경기 보상 및 토양 개량 사업 지원 ▲농지법 개정 및 농업인구 감소 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을 위한 승계 상속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농작물이 수확 이전에 미리 계약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입도선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농가가 처한 다양한 방면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강원 평창군 한 배추농가를 방문해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농작물 전체 생산유통구조가 보통 ‘농사지어서 가을이 되면 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입도선매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기상이변, 특히 기후 문제 때문에 농작물 가격이 급등해 도시 소비자들도 고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유통단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괴로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의 일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과 대책도 강구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그리고 그 안에 생산비 인하, 외국인 노동자 수급, 종자 개량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배춧값 폭등에 외국산 배추가 수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민들은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에서 농작물을 수입해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 가격이 높아도 손해를 본다”며 “농작물 수급 때문에 수입하는 업자들의 마진이 크기 때문에 해당 농작물을 생산하는 조합에 수입권(쿼터)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정완규, 소통 능력 시험대... “카드수수료 제도 개편 필요”

(여신금융협회장)

금융권, 동결 또는 인하 전망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우려

카드업계 재산정주기 연장 기대
“점진적 합리적 결과는 나와야”



연말 가맹점수수료 조정 여부를 앞두고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뉴스시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제도가 정착한 이래 한 번도 인상을 사례가 없었던 만큼 카드업계의 목소리를 금융당국에 전달해야 하는 등 어깨가 무겁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는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호주, 미국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를 비교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정 회장과 서지용 신용카드학회 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주기 개편을 주장했다.

특히 정 회장은 개최사를 통해 국내 대졸에 의존하고 있는 카드사의 수익 구조를 언급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오는 연말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정 회장이 직접발언을 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올해도 가맹점수수료가 동결되거나 내릴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가맹점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인상을 내놓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여전업계 또한 정 회장이 가맹점수수료 인상을 이끌어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는 점이다. 가맹점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과 마찰이 불가

피할뿐더러 금융당국 또한 눈치를 보아야 하는 만큼 여신협회장의 소통 능력이 분수령으로 작용한다. 카드업계에선 정 회장이 취임사에서 발표한 여전업계 수익성 제고 청사진과 비교하면 아쉽다는 평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협회의 역할은 결국 업권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금융권의 특성상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하지만만 지난해 고금리를 겪은 만큼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협회 간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만큼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언급될 수 있는 만큼 각사와 가맹점 간 소통이 요구된다는 해석이다.

카드사들 또한 수수료율 동결과 재산

정 주기 연장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추세다.

장기적으로는 개맹점수수료와 연회비 등 본업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카드업계는 ‘금액수록 손해’라는 말을 유행처럼 사용한 바 있다. 현재 카드사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부과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0.5%, 0.25%다. 판관비를 감안하면 적자라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90% 넘는 사업자가 영세가맹점이다. 더 이상 수수료율을 내릴 여력은 없다”며 “카드사가 이자 수익에 의존하게 된 배경도 수수료율에 있으며 점진적으로는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외산차·고가차 늘자 수리비도 ‘헉’... 車보험 손해율 쑥

대물배상 손해율 85.1%, 자차 85.5%
부품값 안정화·자기부담금 확대 필요

차량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부품비가 전체 차량수리비 상승률을 웃돌면서 부품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등 차량수리 관련 담보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 부품

비 증가의 영향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손해율은 지난 2023년 1분기 75.8%, 74.6%에서 4분기 85.1%, 85.5%로 높아졌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등 차량수리 관련 담보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사고 건당 손해액 증가가 꼽힌다. 손해액의 대부분은 차량수리비인데 구성요소 중 부품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차량수리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차량수리비의 연평균 상승률은 3.7%였으나 부품비는 4.5%로 전체 차량수리비 상승률을 상

회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차량수리비 구성요소 중 부품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차량수리비 상승을 견인했다”며 “차량의 고급화 및 대형화로 차량 가격이 상승했고 특히 외산차 비중도 크게 늘어 관련 차량 부품가격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부품비 및 차량수리비 상승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79.6%에서 5월 80%로 높아졌고 전기차 화재와 9월 폭우로 인해

손해율은 더 상승할 전망이다.

손해율 상승으로 차보험료 인상 압력도 높아지면서 부품가격 안정화 및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 범위 확대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제조사의 부품 의무공급기간을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따른 재고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자기부담금은 지난 2010년 비례공제방식을 도입한 이후 올해까지 통상 20만~50만원의 설정금액이 유지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기부담금 범위를 통상 500~1000달러(약 67만~135만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급차량 소유주의 30%는 1000달러 이상의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 연구위원과 전 선임연구위원은 “부품 의무공급기간이 실제 부품 보유 및 재고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듈화된 제품의 공급단위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서울 집값 30주째 ↑ 매수심리 소폭 반등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0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이번주 소폭 올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오르면서 30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하락했다. 10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전주(101.1)보다 0.5포인트 올랐다. 9월 셋째 주부터 5주째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주 약간 올랐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매수심리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외 신축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해 전체 상승폭은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신한은행 김광수 고객솔루션 그룹장(오른쪽 첫번째), 신한카드 박창훈 Payment 그룹장(왼쪽 첫번째), 교통은행 서울지점 황위선 대표가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중서 SOL트래블카드 QR결제 가능해진다

신한銀-中교통銀 업무협약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 시작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중국 교통은행과 중국 내 ‘SOL트래블 카드 QR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은행은 중국 5개 국유대형상업은행으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지점을 두고 있다.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중국 위안화 결제대금의 정산 및 결제를 대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국에서 ‘SOL트래블 카드 QR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국에서의 결제 편의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SOL트래블 카드’ 보유 고객은 중국에서 스마트폰의 ‘SOL페이’ 앱을 이용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신한은행과 교통은행은 위안화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신한카드는 카드 거래 및 QR코드 생성 분야를, 교통은행은 중국 QR 결제기관인 NUCC와 카드 정산 분야를 담당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

한화포레나, ‘안면인식 로비폰’ 도입

다양한 높이·거리도 빠른 인식
향후 분양 단지에 점진적 적용

한화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FORENA) 아파트에 ‘스마트 안면인식 로비폰’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 안면인식 로비폰은 별도의 카드키 없이 입주인 안면 모습을 빠르게 인식하는 공동현관 출입 시스템이다.

기존 로비폰의 경우 카드키 소지에 대한 번거로움과 분실위험, 다수 이용자로 인한 방역 및 위생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스마트 안면인식 로비폰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등학생 저학년,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니버설 디자인(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범용적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2m에 달하는 거리 및 반경에서도 빠른 인식이 가능해 입주인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한 허위 인증을 방지하는 ‘위변조방지(anti-spoofing) 기술’을 적용해 외부인 출입 통제

를 강화했으며, 로비 출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호출되는 원패스 시스템으로 입주민의 편의를 한 층 더 높였다.

김민석 한화건설부문 김민석 건축사 업본부장은 “스마트 안면인식 로비폰을 통해 고객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화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상품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안면인식 로비폰은 향후 분양되는 한화포레나 단지에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화건설부문은 국내 최초 전용형 전기차충전시스템 ‘포레나EV 어스테이션’,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에어커튼’, 스마트 기능을 현대판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시킨 ‘포레나 홈 IoT’ 등 다양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한화포레나는 올 하반기 고양원당1구역, 부산당리 등 30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전동화 분야 등 제동시스템 경쟁력 확보… 글로벌 톱3 도약”

현대모비스 파리모터쇼 간담회

감속기 등 품질·완성도 강조
“코어기술 글로벌 현지화 집중
점유율 상승하는 시기 올 것”

“제품 품질과 완성도를 앞세워 제동 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톱3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로 꼽히는 파리모터쇼에서 차별화된 제품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이면서 품질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유럽 지역에서 배터리시스템 등 10개의 핵심 기술을 공개하고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업체와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수주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승열 현대모비스 글로벌영업1실 상무와 이형근 EU 글로벌영업실장은 16일(현지시간) 파리모터쇼 현대모비스 부스에서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향후 전략을 공유



현대모비스 이형근 EU 글로벌영업실장(왼쪽), 양승열 현대모비스 글로벌영업1실 상무가 16일(현지시간) 파리모터쇼 부스에서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했다.

올해 첫 파리모터쇼 참가와 관련해 양승열 상무는 “현대모비스는 오래전부터 글로벌 OE 사업을 추진해왔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했다”며 “전동화와 관련된 기술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북미는 물론 유럽 시장도 중요한 만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파리모터쇼를 통해 유럽 브랜드들과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텔란티스와 르노 등 유럽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부스를 다녀갔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 전시장에는 3세대 전자 드라이브 유닛(EDU)을 전시했다. 모터와 감속기, 인버터를 통합해 B-D 세그먼트 SUV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또 22kW 지능형 충전 제어 유닛(ICCU)도 진일보한 기술을 자랑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1kW의 2배에 달하는 성능을 갖춘 모델로 충전기와 DC 컨버터를 통합한 제품이다. 또 전기차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감성적인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벤티쿨

러’ 조명 기술과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 등도 전시됐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폭스바겐으로부터 대규모 전기차 부품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연구소에서 현지 맞춤형 전략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실장은 “폭스바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시스템(BSA)을 수주했다”며 “납품을 위해 폭스바겐 공장이 있는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2026년 양산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개발한 코어 기술을 현지 제조사가 원하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현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국내와 해외에 총 7곳의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업체와의 차별성도 언급했다.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부품 제조 경쟁력도 자국 자동차 업체와 함께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다.

양 상무는 “우리 제품의 품질과 완성도 등이 중국에 비해 더 높다. 결과적으

로 기술력으로 봤을 때 중국 업체들에 비해 좀 더 앞서가고 있다”며 “이같은 경쟁력은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수주를 할 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기아 전기차 시장에서 크게 성장한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해외 업체들이 현대차·기아를 벤치마킹 하면서 주요 부품이 현대모비스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전동화 준비를 꾸준히 준비한 만큼 점유율이 상승하는 업사이클 시기가 올 것”이라며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동 분야의 경우 글로벌 톱3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파리모터쇼 부스 전경. /현대모비스

LG화학, 기능성 화장품 원료시장 진출 가속화

기능성 화장품 원료에 3HP 적용
“지속가능한 뷰티 첫 걸음 될 것”

LG화학이 식물성 오일에서 유래한 친환경 원료로 화장품 시장을 공략한다.

LG화학은 100% 바이오 기반의 3HP(3-하이드록시프로피온산)를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최초 적용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3HP는 식물성 원료의 미생물 발효 공정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바이오 원료다. 적용 분야와 확장성이 무궁무진해 전 세계적으로 3HP에 대한 기술 개발 시도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상용·상업화된 사례는 없다.

3HP는 비임상실험 결과 화장품 분야에서 다양한 효능을 보일 것으로 기



대되는 가운데, LG화학은 최근 화장품 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대봉엘에스와 기능성 화장품 원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검증하기로 했다.

대봉엘에스는 화장품 원료·소재 개발, 생산, 판매 및 임상센터까지의 통합 체계를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로 현재 국내외 1000여개 화장품 업체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양사는 3HP를 원료로 사용하기 적합한 기능성 화장품 제품군을 선정해 제형 개발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2025년까지 임상 평가를 통한 효능 검증을 완료하기로 했다.

LG화학은 3HP 균주, 발효, 정제 기

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으며, 비임상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3HP를 원료로 한 다양한 화장품 조성물 특허 출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LG화학은 기능성 화장품 원료 분야로 신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양사는 향후 3HP 임상 효능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 출시 여부 및 적용 제품 확장 등의 추가 협력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사진)은 “양사의 협력은 지속가능한 뷰티 원료를 개발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일 것”이라며, “임상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적용 분야가 확대될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 ‘더 뉴 캐스퍼’ 출시… PMSA 눈길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

ISLA·크루즈 컨트롤 기본 탑재

현대자동차가 엔트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3년만에 출시한다.

현대차는 17일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캐스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출시 이후 약 3년만에 선보이는 모델로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을 추가했다. 특히 캐스퍼 전동화 모델의 경우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PMSA)’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더 뉴 캐스퍼 전면부는 발광다이오드(LED)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적용한 블랙 하이그로시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찍하고 입체감 있는 프론트 범퍼·스키드 플레이트가 어우러져 단단한 인상으로 거듭났다. 측면부는 신규 17인치 알루미늄 휠과 후면부의 새롭게 디자인된 리어 램프 등을 통해 캐스퍼의 세련미를



더 뉴 캐스퍼. /현대차

부각했다.

특히 이번 모델은 고객 선호도 높은 안전·편의 사양을 대폭 보강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와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으로 탑재했다. 동급 모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전방 충돌방지 보조(FC 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을 추가로 구성했다. 이 외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선, 주행 중 진동 저감을 위한 보강 등도 이뤄졌다.

/양승열 기자

삼성전자, ‘24기가비트 GDDR7 D램’ 개발

12나노급 미세공정 적용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2나노급 ‘24기가비트(Gb) GDDR7D램’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24Gb GDDR7 D램은 현존 업계 최고 사양이다. 이번 제품은 24Gb의 고용량과 40Gbps 이상의 속도를 갖췄으며 전자 대비 용량, 성능, 전력 효율이 모두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에 12나노급 미세 공정을 적용해 동일한 패키지 크기에 셀 집적도를 높였고, 전자 대비 50% 향상된 용량을 구현했다.



24Gb GDDR7 D램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또 ‘PAM3 신호 방식’을 통해 그래픽 D램 중 업계 최고 속도인 40Gbps를 구현했으며, 사용 환경에 따라 최대 42.5 Gbps까지의 성능을 낸다.

PC, 게임 콘솔 등 기존 그래픽 D램의 응용처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워크스테이션,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제품이 필요한 분야까지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부터 저전력 특성이 중요한 모바일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들을 도입해 전력 효율을 30% 이상 크게 개선했다.

제품 내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는 ‘클록 콘트롤 제어 기술’과 ‘전력 이원화 설계’ 등을 통해 제품의 전력 효율을 극대화했다. 고속 동작 시에도 누설 전류를 최소화하는 ‘파워 게이팅 설계 기법’을 적용해 제품의 동작 안정성도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을 연내 주요 그래픽처리장치(GPU) 고객의 차세대 AI 컴퓨팅 시스템에서 검증 시작해 내년 초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SK이노, 수탁사 개인정보 보호업무 지원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위타’ 전파

SK이노베이션이 독자 개발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체 수탁 협력사에 전파해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업무 강화 지원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자체 보안역량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위탁·수탁 관리 시스템 ‘위타(WeTA: We Trusted Advisor)’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 중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체 150여개 수탁사에 전파돼 활용에 들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계약 관리 ▲파기 관리 ▲보호조치 점검 등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위타’에 구현해 수탁사와의 상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증거자료 관리, 체크리스트 자동 알림 등 위탁사와 수탁사가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개인정보 위탁·수탁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지원으로 협력 수탁사들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관리비용까지 줄이는 등 상생 경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셰프 책부터 가전제품까지”... ‘흑백요리사’가 불러온 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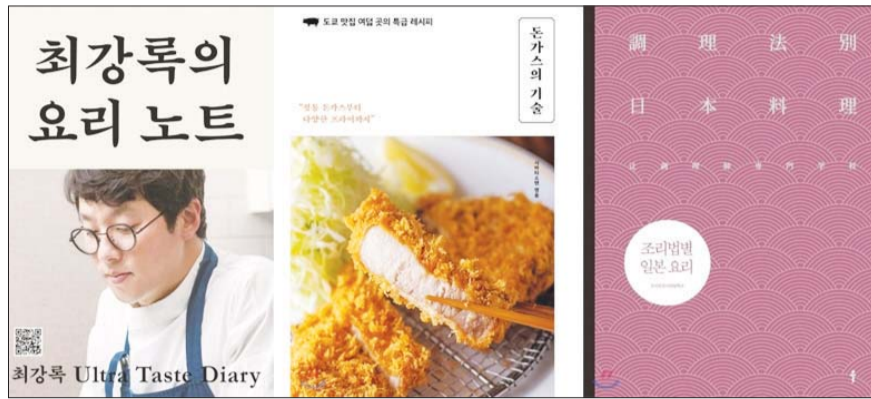
도서·가전업계, 관련 상품 역주행
에스24, 셰프 저서 판매량 93% ↑
요리 만화·셰프의 요리 노트 인기
LG전자, 방송 후 매장 방문객 증가

넷플릭스 요리지널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종영된 지 일주일도 넘었지만, 그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 프로그램 종영 이후에도 책, 가전 등 다양한 관련 산업에서 매출이 증가하며 이른바 ‘낙수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넷플릭스는 17일 흑백요리사가비영 어권 시리즈 중 3주 연속 글로벌 1위를 기록하며비영어권 시리즈물중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 반열에 올랐다고 밝혔다. 국내를 포함해 홍콩, 싱가포르 대만 4개국에서 1위를 차지, 총 18개국에서 TOP 10에 진입했다.

흑백요리사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과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백수저’ 스타셰프들이 오직 맛 하나로 맞붙는 100인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관련 도서도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관련 도서도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참가자인 최강록 셰프의 저서 중 하나인 ‘최강록의 요리 노트’의 판매량은 프로그램 방영 이후 전월 대비 1276.6% 급증했다. 위 이미지는 최강록 셰프의 도서 목록. /에스24

다. 에스24 등 도서·출판업계에 따르면, 출연 셰프들의 저서 판매량이 9월에만 전월 대비 93.2% 증가했다.

특히 요리 유튜버이자 참가자인 최강록 셰프의 저서 중 하나인 ‘최강록의 요리 노트’의 판매량은 프로그램 방영 이후 전월 대비 1276.6% 급증했다. 또한 그가 지난 2013년 ‘마스터셰프코리아2’에서 언급했던 요리 만화인 ‘미스터 초밥왕’의 판매량도 덩달아 상승했다.

셰프의 저서뿐만 아니라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다른 셰프들이 요리 영감

을 받았다고 언급한 도서들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만땅’으로 출연한 조광호 셰프가 영감을 받았다고 소개한 요리 만화 ‘철냄비짱!’은 판매량이 전월 대비 16배 이상 늘었다.

가전업계에서도 ‘흑백요리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백수저와 흑수저의 1:1 대결 과정에서 LG전자의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스템 얼음정수 냉장고’ 20대가 무대에 나열되면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셰프들이 각 대결에 사용할 재료를 고르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흥



LG전자의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스템 얼음정수 냉장고’ 20대가 무대에 나열되면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LG전자

어, 된장, 고추장, 들기름 등의 예상치 못한 재료들이 등장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 바 있다. 이외에도 생선을 굽는 장면엔 LG전자의 광고오븐이 노출되며 눈도장을 찍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 이후 키워드 검색량 증가하는 등 간접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면서 “매장에서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방영되기 전보다 늘었다”고 귀띔했다.

한편, 흑백요리사는 내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흑백요리사 시즌2’ 제작이 확정됐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KT “LTE 의존 없이 통화”

제주도 5G 오픈랜 구축

KT는 제주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글로벌센터에 5G 오픈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오픈랜은 기지국 장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파트를 분리하고, 장비간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해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를 상호 연동하는 기술이다.

이번에 구축한 5G 오픈랜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의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사업’의 결과물이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5G망에 오픈랜을 구축한 첫 사례로, 5G 통화 서비스(VoNR) 기능을 지원한다. 5G 네트워크는 LTE 연결 여부에 따라 단독모드(SA)와 비단독모드(NSA)로 구분되는데, 5G 오픈랜 시스템은 SA 환경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에 LTE 의존 없이 단독으로 5G 통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는 KT 측은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황현식 “AI 기술, 변화 체감할 품질 혁신 우선”

(LGU+ 대표)

LGU+ 대표, 임직원 타운홀 미팅
품질경영 통해 5G·고객 경험 선도
“익시오, 고객 피드백 중심 개선 필요”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AX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기반으로 한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전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만.나.공: 만나서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열고 AX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들을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미팅은 ‘AX 컴퍼니 가속화를 위한 U+ 미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고객의 성장을 이끄는 회사(Growth Leading AX Company)’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앞세워 AX



(왼쪽)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직원들의 AX 전략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LGU+

컴퍼니로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날 황대표는 “고객에게 인정받는 AX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결국 품질”이라며 “그 어떤 혁신적인 AI 기술도 품질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고객감

동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이 발전하고 고객들의 기대 심리도 점점 높아지는 환경에서 기본이 되는 품질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고객이 인정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AX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기본부터 챙겨 나가자”고 말했다.

황 사장의 메시지는 최근 많은 기업들의 AI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 경쟁에만 치중해 가장 기본이 되는 고객가치를 놓치지 말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출발점으로 품질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여러 조직에 산재되어 있는 고객 관련 기능들을 모은 고객경험혁신센터(CX센터)를 CEO 직속 조직으로 신설했고, 올 3월에는 서울 마곡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상품 및 서비스 품질 관련 사안들을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황 대표 주재로 매월 ‘품질혁신세션’을 열어 고객 관련 품질 지표도 관리한다.

이 같은 품질경영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해외의 한 시장조사기관으로부터 ‘세계에서 5G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빠른 통신사’로 꼽혔다. 또 지난달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에서 국내 통신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콜센터품질지수(KS-CQI)에서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LG유플러스는 출시를 앞두고 있는 통화 AI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의 개발 현황과 스토리도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브로드밴드

기업용 전용회선 구축

IP-MPLS 방식으로 전국망 도입

SK브로드밴드는 기업 고객의 서비스 고도화 요구에 맞춘 차세대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P-MPLS 방식으로 전국망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IP-MPLS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으로 늘어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전송 기술 방식이다. 빠르고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합할 수 있는 확장성도 가지고 있어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7월 IP-MPLS 기술 방식에 대한 성능 비교 시험을 마무리하고 전국망 도입을 결정했다. 전국 단위 망 구축으로 다중 경로 백업을 지원해 기업 고객이 가장 중요시하는 서비스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IP-MPLS 기술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최대 400기가비트 대역폭까지 기업 고객의 상황에 맞춰 서비스 확장 제공이 가능해진다. 클라우드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 간 대역 회선용량이 필요한 초대형 기업 고객에게 안정 맞춤형 서비스이다.

또한 SK브로드밴드가 전국 단위로 기업 고객 대상 IP-MPLS 전용망을 사전 구축함으로써 투자비 등으로 인해 선택을 망설였던 중소 규모 기업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고성능, 고신뢰성, 고확장성을 보유한 IP-MPLS 방식에 대한 기업 시장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구남영 기자

CJ올리브넷, 베트남에 스마트팩토리 짓는다 카카오, 전국 15개 지역 상권 디지털 전환

CJ올리브네트웍스가 하이트진로의 첫 해외 생산 공장인 베트남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을 수주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세계 주류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과 외형 확장에 따른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에 해외 첫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베트남 공장의 초기 목표 생산량은 연간 100만 상자 이상으로 동남아 시장 거점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식음료 분야 스마트팩토리 역량과 CJ그룹의 다양

한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했다. 회사 측은 이번 하이트진로 수주에 대해 해외에서 추진하는 첫 대외 스마트팩토리 사업이자, 공장의 생산 전 과정을 설계, 조달, 시공까지 책임지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성공적인 베트남 해외 공장 구축을 위해 주류 생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동화 설비 시스템 설계부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가 전국 7개 지역 상권에서 ‘단골거리 2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본 사업은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진행한다.

‘단골거리’는 지역 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고객과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 사업이다.

2차 사업 대상 지역은 ▲충북 청주시 소나무길 골목형상점가 ▲경기 수원시 행궁동 상권 ▲서울시 종로 북촌계동길

골목형상점가 ▲서울시 마포 방울내길 골목형상점가 ▲대구 중구 향촌동 상권 ▲경남 창원시 소리단길 상권 ▲서울시 노원 경춘선 공릉숲길 상권 등 7곳이다. 1차 사업 지역 8곳을 포함해 올해 총 15개 지역 상권을 지원한다.

참여 소상공인에게는 ▲찾아가는 1:1 맞춤 교육 ▲카카오 서비스 입점 지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지원금(상권당 300만 원, 개별 점포당 30만 원) ▲카카오맵 내 ‘사업 참여 매장’ 배너 노출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이혜민 기자

유럽에서 2번째로 넓은 알프스 면적을 가진 이탈리아
그 속에 숨겨진 소도시들과 아름다운 기암 봉우리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

이탈리아 돌로미티 & 알프스 소도시

[8박 10일]

No 팁!, No 옵션!, No 쇼핑!


알프스 소도시에서 즐기는 낭만과 여유로운 여행
전문 가이드가 함께하는 맞춤형 안전여행

freepik




남프랑스 휴양지 &
예술인들의 소도시 [7박 9일]




독일 중남부,
고성과 소도시 [7박 9일]




이탈리아 남부
숨겨진 소도시 여행 [7박 9일]

MICE는 물론 일반여행도
여행사는 결국 에스앤마일즈입니다!



QR 코드 스캔
카카오톡채널 연결
등록 후 상담원 연결 가능

이복현, 가계대출 관리 개입 관련 “도 넘은 부분 자중하겠다”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국감

“입장 표명 시 협의 거치고 있어 7월~8월 ‘가계대출 쏠림’ 경우 ‘銀 연내 관리 요청’ 의도로 말한 것”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관련 구체적인 상법 개정엔 답변 아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나온 발언과 상법 개정과 관련해 그간 목소리를 내 온 것에 대해 “도를 넘은 부분 있으면 자중하겠다”면서도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약이 이뤄진 내용 중심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당국의 가계부채 대응이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끼친데 대해 사과와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급등 등 시장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해야 되는냐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며 “입장

표명 시 정부, 금융위, 금감원 경제팀이 함께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하며 월권행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감독 행정 범위 내에서 과

거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은행에 연내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추진’에 대해 금감원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엇갈렸다.

이 원장은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나”라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법 개정은 상법 체계를 봐야 하고 기업들이 ‘배임죄’를 우려하고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진행)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상법 개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아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질문이 나왔다. 이날 오전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

정했다.

검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전체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거래소의 (이상징후 심리) 결과가 감독원으로도 왔다”며 “바로 사법절차로 넘어갈 수는 없고 금감원이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장이 수사 전에 언론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혹,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국감 때마다 묻는데, 없다”며 “이제 좀 믿어달라”고 정계 진출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중소형 증권사, 부동산PF 부담 지속… “추가 손실 가능성”

8개사 중 3곳, 2분기 영업익 적자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손비용 부담 ↑ 중·후순위 비중 72%… 신용도 하향 전망

중소형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부담 등으로 인해 실적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중소기업 증권사들이 추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PF 투자건들로 인한 부실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특히 최근 금

융당국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 기준이 적용되면서 대손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기 자본이 1조원 이상 3조원 미만의 증권사 8개사(한화투자증권·유안타증권·iM증권·BNK투자증권·IBK투자증권·현대차증권·교보증권·신영증권) 가운데 3개사가 2분기에 영업익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형증권사들과 달리 중소기업사들은 여전히 부동산 PF 리스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증권은 2분기에만 부동산PF 관련 1509억원 규모의 총당금을 적립했고 한

화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은 각각 289억원, 414억원의 총당금을 쌓았다.

윤재성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비 종합금융투자회사가 종투사 대비 고위험 부동산 PF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 종투사의 자기자본 대비 추가 적립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비 종투사를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추가 손실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실시한 부동산 PF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리 계획 추진 과정에서 추

가 손실 발생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1차 평가 대상 외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2차 평가 과정에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규모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증권사의 신용도 하향 또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현재 중소기업 증권사들이 인수한 부동산PF 물량 중 위험성이 큰 중·후순위 비중이 72%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의 중·후순위 비중(3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앞서 올해 상반기 나이스신용평가는 SK증권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강등한 바 있으며 신용등급이 ‘A’인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케이프투자증권에 ‘부정적’ 전망을 책정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대형사와 중소기업사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 수석연구원은 “정통 기업금융(IB)과 자산관리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종투사가 이미 우수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비 종투사의 경쟁적인 진출로 경쟁 강도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노벨상·경영권 분쟁’ 테마주 열풍… 급등락 주의보

출판기업 ‘단기적 관심’에 급등락 추세 고려아연 등 신고가 경신… 변수 존재

최근 노벨상, 경영권 분쟁 등에 관련한 ‘테마주’들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벤트성이 짙은 주가 흐름인 만큼 급등·급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노벨문학상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던 에스24가 3거래일 오름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 2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보였지만 3거래일에는 5.55% 오르면서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이후 4거래일 차에는 11.43% 급락했으며, 이날도 6.58% 내림세를 보였다. 에스24의 모회사인 한세에스24홀딩스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1.66% 오르기는 했지만 2거래일 연속 상한가 이후 다음 날부터 21.97%, 8.77%씩 크게 떨어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기 시작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책 판매량이 100만 부를 돌파한 16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한강의 책을 고르고 있다. /뉴스시스

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출판 기업들의 주가가 신드롬을 맞이하는 듯했지만 단기적인 관심이 쏠린 탓에 급등락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노벨상 테마주’로 급등했던 삼성출판사, 밀리의서재, 예림당 등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티웨이항공의 최대 주주인 예림당은 ‘경영권 분쟁 테마주’

로도 분류되면서 ‘더블 테마주’에 등극한 품목이다. 다만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추가 지분 매입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전의 전쟁’ 1라운드를 마친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주가도 널뛰기를 반복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9월부터 이달 16일까지 51.21% 올랐다. 해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지난 15일에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더불어 같은 기간 영풍 정밀의 주가도 211.61% 올랐다.

다만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는 만큼 여전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종료일에 발생한 ‘시간 주가 급락 미스터리’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 여부’ 조사를 요청하며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

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이었던 14일 고려아연의 주가는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하며 당일 최고가인 82만원을 터치했지만, 이후 두 시간 만에 최저가인 77만9000원까지 떨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MBK의 공개매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인 만큼, 고려아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의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한 상황이었음에도 직전 거래일 증가보다 1000원(0.1%) 감소한 79만3000원으로 장이 종료됐다.

황세은 자본시장 연구원은 “코로나 19 이후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테마주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활용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욕구가 커져 있는 상태”라며 “테마주들은 주가 상승이 유지되는 경우보다 원상복귀하는 경향이 크다. 이 과정에서 주가 급락 등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투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화투자증권

인수 ‘칩타다나證’ 인수

한화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칩타다나 증권 인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칩타다나증권은 인도네시아 재계 6위 리포그룹 계열로 3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견 금융사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칩타다나증권 지분의 8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말에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인수로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동남아시아 주요국 금융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8000만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데다 평균연령도 29.7세이다. OECD가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5.1%로 전망하기도 한 만큼 디지털 금융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인도네시아 리포그룹과 협업 관계를 유지해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관희기자

패션업계 '성수동' 집결... 상품판매 넘어 브랜드 가치 공유

상반기 팝업 오픈 개수 성수동 1위
아떼 바네사브루노, H2000명 방문
뉴발란스, 228명 플래그십스토어
오픈 첫날에 방문객 2000명 돌파



이랜드 뉴발란스,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 전경. /이랜드월드

패션업체들이 성수에 몰리고 있다. 외국인 방문객을 공략하겠다는 전략과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성수에서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패션업체들이 성수에 연이어 매장을 개점하면서 브랜드 경쟁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성수동은 2024년 하반기에도 명실상부한 패션의 성지였다.

온라인 마케팅 업체 아이보스가 2024년 상반기 677개 팝업 스토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팝업스토어 오픈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 1위가 성수로 나타났다. 동시에 카테고리별 분류에 따르면 패션 잡화 분야

가 18.9%로, 캐릭터 IP 팝업스토어 (20.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실제 LF의 가방 브랜드 '아떼 바네사 브루노'는 지난 12일 최근 가을 겨울 상품을 출시하고 성수동에서만 두 번째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팝업 공간은 '가을의 프리ل 파티'라는 주제로 로맨틱한 디자인과 소재를 적용한 제품들을 직접 착용할 수 있게 구성됐다. 팝업 오픈 후

주말 동안 2000여명의 고객들이 방문하고 대기 인원 발생했다는 게 LF 측의 설명이다.

이랜드월드의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지난 16일 성수동에 약 228평 규모의 대규모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루프탑으로 구성된 뉴발란스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뉴발란스 직영 매장 중 대규모

공간이다.

오픈 첫 날 방문객이 2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곳에서 뉴발란스 상품의 프리미엄 제품군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는 게 이랜드월드 측의 설명이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이번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메인인 유에스(US), 메인인 유케이(UK) 등 프리미엄 상품을 주로 선보이는 매장"이라고 소개했다.

뉴발란스에 따르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플래그십 매장 건물 1층은 팝업 공간으로 운영한다. 이곳에서 뉴발란스의 제품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뉴발란스 993아트갤러리: 과거와 현재의 예술적 조우' 행사를 진행한다.

패션업체들이 성수로 집결하는 이유에는 성수가 2030과 외국인 관광객의 교집합 지역이라는 분석이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플래그십 매장 설립 지역으로 성수를 선택한 것은 젊은 층의 내국인과 함께 외국인을 함께 타겟팅할 수 있어서"라고 말했다.

LF 관계자 역시 "시간이 지나도 성수는 패션의 성지가 여전히 맞다. 성수는 유행이 빠른 20대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며 "지난 3월 성수에서 팝업을 진행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저번에도 이번에도 외국인 방문객이 많아 성수를 주요 입지로 선택했다"고 전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략도 있다는 게 업계 측 분석이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성수 플래그십 매장은 상품 판매 집중이라기보다 전시와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장이기도 하다"며 "다양한 전시와 브랜드 아카이빙 공간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이제는 상품만이 아닌 고객 경험이 중요해진 시대"라며 "그런 점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성수에 다양한 팝업스토어와 브랜드 아카이빙 공간이 함께 구성된 매장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한국엔컴퍼니, VCD 시스템 등 AI성과 알려

테크노플렉스에 산업장관 방문
AI기술 성과 발표·기술도 시연
'가상 타이어'로 시간·자원 절약



한국엔컴퍼니그룹의 AI 기술 시연을 참관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도입을 통한 성과를 공유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17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테크노플렉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방문한 가운데 AI 기술 적용 성과를 발표하고 해당 기술을 시연했다.

산업부 장관 방문은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연구개발(R&D) 과정에 AI를 적극 도입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선정되어 산업부의 현장방문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실제로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조현범 회장의 주도하에 '데이터/AI드림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AI·빅데이터 전문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전문인력 양성, 첨단 인프라 구축 등으로 디지털 전환을 실현했다.

대표적인 성과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9년에 AI 기반의 '버추얼 컴파운드 디자인(이하 VCD)'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다. 이는 AI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이어 컴파운드 특성을 예측해 최적의 컴파운드 조합법을 만드는 기술로 개발 기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VCD를 비롯해 타이어 전 개발 단계에서 '가상 타이어 개발' 기술을 적용해 실물 제품 개발 방식보다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고 있다.

이 외에도 타이어 패턴 디자인을 스스로 학습해 생성하는 '패턴 생성 AI 모델'과 전 세계 고객의 타이어 성능 리뷰를 분석하는 'VOC 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도입하

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는 AI 기반 사내 디지털 서비스도 도입했다. 대화형 AI 서비스 챗HK(ChatHK), 번역 전문 서비스 컴HK(CommHK), 사내 메신저 AI 번역 서비스까지 총 3종으로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연구개발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혁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이날 발표와 시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TXR로보틱스, 로봇융합연구소 준공

연구개발·생산역량 결집

유진그룹 계열 물류·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TXR로보틱스가 스마트공장 및 로봇융합연구소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17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TXR로보틱스는 지난 15일 오전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에서 엄인섭 TXR로보틱스대표

와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준공한 TXR로보틱스의 스마트공장 및 로봇융합연구소는 연면적 3472㎡ 규모에 지상 3층의 스마트공장과 지상 4층의 사무동으로 이뤄져 있다. 물류·로봇 자동화설비 연구 및 생산 기지로 연구개발과 생산역량을 이곳에 결집했다.

TXR로보틱스는 유진그룹의 물류계열이었던 태성시스템이 올해 상반기로봇 자동화 전문회사인 로탈을 합병해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 회사다.

TXR로보틱스는 대표 제품으로 다양한 화물을 빠르게 분류하는 휠스터, 버티컬틸트트레이스터, 플립스터 등과 무인으로 이송 및 제조 작업을 수행하는 AMR(Autonomous Mobile Robot),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KT&G, 수소화물차 2대 도입

11t 규모로 완충시 570km 주행
대전공장 고정 노선 투입키로

CJ대한통운이 KT&G와 친환경 물류를 위해 손을 잡았다.

CJ대한통운은 KT&G 물류과정에 11톤(t) 수소화물차 2대를 새로 투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날 오전 KT&G 대전공장에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SG경영 수소화물차 운영 오픈식' 행사를 가졌다.

신규 수소화물차는 11t 급으로 완충시 570km를 주행할 수 있다. 연료인 수소의 안정적 수급을 고려해 인근 청주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공장의 고정노선에 투입했다.

차량 측면과 후면에는 수소화물차를 알리는 로고와 더불어 'CJ대한통운과 KT&G는 친환경 물류에 함께 앞장서

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양사는 온실가스 저감 등 ESG경영에 뜻을 같이했다. 상호 협의를 통해 이번 차량 투입 및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 KT&G 물류에 수소화물차가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동력수단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J대한통운은 수소물류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앞서 지난해 6월 기체수소 운송사업에 진출했다. 최근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사업을 개시하면서 수소물류 전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친환경 수소모빌리티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년 11t급 수소화물차 두대를 도입해 택배화물의 운송에 투입했으며 물류센터에서 운영 중인 화물차와 지게차 등의 수소 동력 장비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9월 자동차 수출액 55억 달러 '역대최고'

산업부, 전년 대비 4.9% 증가
올해 누적 수출액 529억 달러

9월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9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전기차 신차인 기아 EV3 수출 본격화, SUV 수출 확대, 한국지엠의 수출 회복세 등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4.9% 증가한 55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전년동월 대비 1.6% 증가한 529억달러로 역대 최고다.

친환경차(승용 기준) 수출은 1년 전보다 12.3% 증가한 19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

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1.9% 증가한 6만2388대다. 특히, 투싼, 쏘나타, 카니발 등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전년 대비 75.6% 급증한 10억1000만달러로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승용차 모델별 수출량은 트렉스(2만2436대), 코나(1만7488대), 아반떼(1만6252대), 투싼(1만3077대), 트레일블레이저(1만2931대), 쉐라티드(9789대), 니로(9238대), 스포티지(7982대), 모닝(7557대), 쏘나타(7414대) 순이다.

자동차 생산량은 30만7000대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지난해 9월보다 조업일수는 평일 기준 1일 감소했으나, 주요 완성차사는 해외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을 확대하면서 3개월만에 월 생산 30만대를 회복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기업 모두 '만족'... 내년 1만명 확대

고용부, 일경험 사업 성과 분석
기업 4193개, 청년 3.9만명 참여
청년 직무탐색 도움 46.5% 향상
기업 인지도 35.5% 대폭 증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A청년은 관심 있던 기업에서 냉동공조 시스템 설계 및 개발지원 실무를 경험한 후 본인의 적성을 확신하게 됐고, 해당 기업에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

#B청년은 GS인증 관련 경험을 쌓은 뒤, 직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국비지원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 청년과 기업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채 종말, 바늘구멍 뚫기 채용 시장 속에서 청년은 직무역량을 쌓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지난 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24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과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탐색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

17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직무역량 향상,

직무탐색 도움, 기업 인지도 개선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업 참여 전에는 직무역량 향상에 대한 평가는 55.1점이었지만, 참여 후에는 79.4점으로 44.1%(24.3점) 올랐다. 직무탐색 도

움은 57.6점에서 84.4점으로 46.5%(26.8점) 올랐고, 기업 인지도 개선의 경우 66.0점에서 89.4점으로 35.5%(23.4점) 증가했다. 참여 기업들 또한 우수 인재 탐색과 산업·기업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등으로 만족도가 높다.

'엔터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 참여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C청년은 "실제 아티스트와의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점과 다양한 기획·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회사 입사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기업에서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 동시에 청년들에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지류 제조 판매업종 일경험을 지원한 한솔그룹은 "사업 참여 이후 공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7배나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에 맞춰 지난 2023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을 신설했다. 현장의 긍정적 반응에 힘입어 지난해 2만6000명에서 올해 4만8000명으로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까지 약 3만9000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4193개 기업에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청년 지원 인원을 1만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수시·경력직 채용이 확산되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 우수 지역기업 컨설팅 등 청년과 기업이 일경험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스마트팜 에너지 비용 절감대책 강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부산·상주 스마트팜 우수사례 참관
청년농업인들과 현장애로 사항 청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부산과 경북 상주에 위치한 스마트팜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마트농업 종사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등은 각 지자체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추진할 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날 부산에 있는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찾아, 공장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공장 부지 내에는 농업회사법인 그레프의 스마트팜 연구소가 들어서 있다. 또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청년농업인들과 스마트팜 현장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는 “농업 부문에 산업폐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농식품부의 스마트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예단지 기반 조성, 저탄소에너지 공동 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농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인 스마트농업에 드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로 스마트농업이 확

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제강 측은 폐열 공급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 시 정부 지원 확대, 농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방문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스마트팜실 증단지, 빅데이터 센터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참관하고 청년농업인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요생들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속한 건립과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창업에 위한 토지 구입 시 ‘선임대후매도’ 및 ‘농지매매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대상지원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온라인농산물 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21~25일 특별검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판매 농산물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중 쌀, 상추, 버섯, 사과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이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21~25일 닷새간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수거·검사에서 농식품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재배 현장을 방문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

물을 직접 구매해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부적합 정보는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일터혁신 컨설팅 통한 기업-근로자 상생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사례공유’

노사발전재단은 17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2024년 제7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상생지원협회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지향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의 역할을 논의하고, 사업성과의 확산방안을 토론했다.

먼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연합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기 용인시 요양시설 4개사(다인실버케어 요양원, 노블레스 요양원, 시니어케어 요양원, 늘봄실버타운 요양원)의 컨소시엄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근로 형태와 급여 수준이 비슷한 4개 요양원은 교대제 근무(3조 2교대)에 따른 장시간 근로와 요양보호사의 이직률 개선이라는 공통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설립 1년 만에 근로자가 50~60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근로

자 간 반목이 심하고, 노사 간의 신뢰 형성을 맺을 시간적인 기회가 부족했다. 4개 요양원은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해 근로 형태를 유연하게 조절하면 서도 주 52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했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사례는 치과 보철물을 인공 지능(AI)으로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마고웍스’가 발표했다. 회사는 인사관리(HR) 시스템을 일 중심으로 구축하고, 단계별 요구 역량과 업무 기대치를 투명하게 제시해 조직 내 성과와 성장 중심의 문화를 강화하고자 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직무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하여 직무별 커리어 래더(career ladder) 단계를 설정했다. 개별 구성원의 레벨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커리어 래더 제도를 도입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농식품부 “가루쌀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 혜택”

이마트·네이버·쿠팡과 4주간 협업
온라인서 ‘가루쌀몰’ 개설해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마트, 네이버, 쿠팡과 함께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대전’을 4주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그간 출시된 가루쌀라면,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경험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을 통해 최대 50% 할인에 판매한다. 할인행사 기간은 이마트가 10월18일~10월31일 2주간, 네이버가 10월18일~11월17일 4주간, 쿠팡이 10월24일~11월17일 3주간

이다.

농식품부는 이마트와 협업해 국내 이마트 전 지점(131개소)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그중 매출액이 높은 70개 지점에서는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행사제품의 시식 행사를 실시한다. 또 구매자 선착순으로 가루쌀 기념품(행주, 달력, 인형키링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서울 왕십리점에서는 가루쌀 시식·전시매장을 운영해 가루쌀을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토크 이벤트를 통한 성심당 마들렌 등 선물 증정 행사도 준비 중이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에 ‘가루쌀몰’을 개설해,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전을 진행한다. 또 가루쌀 몰에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쿠폰 1000원권을 지급한다. 쿠팡 ‘착한상점’의 경우, 동일 행사를 한 주 늦은 24일부터 시작하며 할인된 품목에 1000원 추가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선보이는 가루쌀 제품은 국내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가루쌀을 사용해 개발·출시한 제품”이라며 “가루쌀 제품은 맛은 물론이고 친환경 등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최근 소비 경향에도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아이들형 - 신성록

10/18(금) 오전 11시, 2차 티켓오픈!

MUSICAL

SWING DAYS

암호명 A

2024.11.19 ~ 2025.02.09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정근식 “재정 따른 교육격차 경계… 사교육 공공성 강화 고민”

제23대 서울시교육감 취임식

사교육, 많이 활용하는 교육 통로 사회구조적 원인과 함께 풀어야 재정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학령인구 감소, ‘기회’ 될 수도



정근식 서울시장교육감이 17일 오후 서울 중로구 서울시장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근식 제23대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오후 취임 후 서울 중로구 서울시장교육청에서 마련된 첫 기자회견에서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틀 속에서 학생들이 사교육의 학습 기회도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교육계에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공교육은 선(善), 사교육은 악(惡)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지만, 실제 우리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 많이 활용하는 교육 통로

로 이를 완전 부정하기는 힘들다”라며 “다만 너무 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일부는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교육 격차가 심화하는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비를 부담하는 일부 계층에만 사교육에 접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접근할 수 없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사교육 시장의 공공성 강화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교육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학 서열 체제, 지나친 입시경쟁 등 사회구조적 원인과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과 잇는 교육 행정을 펼쳐겠다고 다짐했다.

정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은 상당 정도 정상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중학교가, 이에 비해서는 고등학교가

새로운 흐름에 취약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원인이라는 게 정 교육감 진단이다.

정 교육감은 “과열된 입시경쟁과 교육비 부담 등이 결혼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완전히 분리해서는 이 문제(과열된 입시경쟁과 교육비 부담)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감으로서 대학, 교육부와 활발히 소통하며 공통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는 단지 ‘위기’일 뿐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가 학교 재정 예산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되레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진정한 교육선진국은 하나의 잣대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학생들이 갖는 각자의 소질

을 개발해 학생 한명, 한명이 빛나는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 재정 축소는 정 교육감이 당면한 과제다. 일각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하지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초·중등 학생 수 줄었으니, 예산도 깎는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라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봉준호 감독과 BTS 등 세계시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인을 배출하는 등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이제 현실이 됐다”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일률적 잣대에 따라 학생을 교육 및 평가하지 않고)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바로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뜻, ‘미리 내 집’ 찾아 결혼·양육 등 건의 청취

신혼부부 4쌍과 아파트 현장점검 결혼, 출산, 양육 등 건의사항 청취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자를 한 달여 앞두고 신혼부부들과 함께 아파트를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을 찾아 ‘미리 내 집’에 당첨된 신혼부부 4쌍과 아파트 현장 점검을 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과 주거난 관련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이 모 씨는 “그동안 구축 아파트에 살다 보니 아이가 뛰어놀 놀이터가 부족했는데 큰아이와 곧 태어날 둘째를 위해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렴한 임대료에 이사 걱정을 하

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미리 내 집은 오세훈표 주택 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0년간 살 수 있으며,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해준다. 자녀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가능하다.

시는 미리 내 집 1호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를 모집해 지난 7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입주하는 오는 12월 이뤄질 예정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미리 내 집은 입주자 300호(전용면적 49·59㎡ 각 150세대) 모집에 1만 7929가구가 신청, 평균 경쟁률 60대 1, 최대 경쟁률 213대 1(무자녀 대상 49㎡)을 기록했다. 1~2차 입주자 모집 평균 경쟁률도 50대 1을 넘어

섰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2026년부터 매년 미리 내 집을 4000호 이상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다. 올 12월 진행될 제3차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에는 ▲메이플자이(서초구 잠원동) ▲청계 SK뷰(성동구 용답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동대문구 용두동) 등이 포함돼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해 연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세훈 시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에 실제 입주하는 분들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물량도 최대한 늘리고 유형도 더 다양하게 공급해 결혼, 출산할 용기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지원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 디자인 2024’ 기자간담회

1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 디자인 2024’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서울디자인 2024’는 내일을 상상하다(Imagine Tomorrow) 주제로 시가 디자인 세계를 이끄는 영향력에 대해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소상공인과 기업이 함께 전시와 마켓, 콘퍼런스, 부대행사와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풀어낸다. ‘서울 디자인 2024’는 17일(목)부터 27일(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서울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손진영 기자 son@

“파주개성인삼의 우수한 효능 느껴보세요”

내일부터 이틀간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시의 대표 농산물 축제인 ‘제19회 파주개성인삼축제’가 19일부터 20일까지 임진각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이번 축제는 파주개성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파주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개성인삼축제에서 판매되는 모든 인삼은 6년근 인삼으로, 파주시 공무원의 철저한 입회 아래 재배부터 채굴, 선별, 봉인 과정까지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 제품이다.

이번 축제는 ‘즐겁게(불거리), 맛있게(먹거리), 함께(놀거리)’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즐겁게(불거리): 장단삼백요리 경연대회, 인삼배 씨름대회, 거리공연 및 폐막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맛있게(먹거리): 파주 지역의 농특산물과 가공품, 즉석 가공품 및 전문 음



식들이 판매되며, 축제장을 찾는 이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함께(놀거리): 인삼 경매, 서커스 놀이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임진각 주변에는 임시주차장과 평화누리 주차장, 캠핑장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며, 문산역과 임진각 행사장을 오가는 순환버스도 수시로 운행되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파주개성인삼축제는 파주개성인삼의 효능을 알리고,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동시에 다양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편 디자인’ 민간 확산

서울의 ‘편(Fun) 디자인’ 시설물이 공공 공간을 넘어 민간 현장으로 확산한다.

서울시는 17일 현대건설과 함께 시 전역 13개 주택건설 사업지에 편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편 디자인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물에 재미를 더해 도시를 매력적이고 활력 넘치게 만드는 디자인이다.

양 기관은 ▲편 디자인 시설물 디자인 제공 및 협의 ▲편 디자인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편 디자인 시설물 확산 홍보 업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시는 편 디자인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건설은 내달 말 준공 예정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서울 전역 13개 주택건설 사업지에 편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볼거리·먹거리 가득한 ‘명량대첩축제’

진도군, 오늘부터 20일까지 개최

진도군은 2024 명량대첩축제가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근대면 녹진관광지 일원과 진도대교 등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이라는 주제로 월 18일 첫째 날, 오후 7시에 녹진 승전무대에서 개막을 알리며, 생동감을 살린 ICT융복합 멀티미디어 해전 재현과 국카스텐의 축하공연, 해상 불꽃쇼가 펼쳐진다.

또한, 녹진승전무대에서는 18일에 남도들노래, 울돌목 국악의 향연, 광양 시립국악단 공연 등이 펼쳐지며, 19일에는 조선수군 무예대회 예선, 청소년 가요댄스 예선, 트로트 명량한밤, 해상 불꽃쇼 등이 예정되어 있고, 20일에는 진도씻김굿, 조선수군 무예 및 팔씨름 대회 본선, 장현 거리 노래방으로 인하여 많

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간의 축제 기간에 녹진 주말장터에서는 14시부터 주말장터 특별공연, 16시에는 남도 품바 명인전과 명량트롯 향연 공연이 진행되며, 대교광장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보면서 향토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번 축제에는 ‘녹진코스모스 체험장’을 운영해 강릉열차 및 서화 체험, 신호연 날리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음악과 함께 코스모스를 구경하며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명량대첩축제 참여를 위해 진도를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와 맛있는 먹거리,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진도군 이미지 제고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9h7505@

“할랄 시장 잡아라”... 식품 이어 뷰티·패션, 무슬림 공략

CJ제일제당·농심·대상 할랄 인증 SPC, 말레이시아에 할랄 전용공장 중동·아프리카 12국 수출품 생산 아모레·LG생건도 할랄제품 판매 유니클로·H&M 등 SPA 브랜드 무슬림 위한 의류 ‘모디스트 컬렉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페어몬트 호텔에서 갈라다리 브라더스 그룹 모하메드 갈라다리 회장(왼쪽)과 SPC그룹 허진수 사장이 ‘파리바게뜨 중동 진출을 위한 조인트 벤처 파트너십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SPC

인도네시아가 자국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할랄(Halal)’ 인증을 의무화 하면서 유통 전반에 걸쳐 할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할랄은 ‘신이 허락한 것’이라는 의미로, 무슬림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허용된 제품이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 가공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며, 비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마크를 받아야 한다.

이슬람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할랄 시장은 그 규모와 잠재성이 크다.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할랄 시장은 연간 8.9% 수준으로 지속 성장 중이다.

국내 식품 대기업들은 이슬람권 시장

공략을 위해 일찍이 할랄 인증을 받고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할랄 인증 획득 제품은 김, 김치, 설당을 포함해 100여종이다. 농심은 10개 브랜드 40여종 제품을 인증받았다. 대상은 김치를 비롯해 50개 품목에 대해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SPC의 경우 올해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할랄 식품 전용 공장을 완공해 향후 진출할 중동과 아프리카 12개국에 공급할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기업들은 수출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할랄 인증을 시작했다”며 “많은 업체가 ‘할랄제품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할랄 식품이 윤리적이거나 인식이 확산하며 비무슬림 인구도 할랄 음식 소비에 동참하고 있다.

이슬람권 국가 중 인도네시아는 5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17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한 할랄제품보장법을 시행했다. 유통 매장에서 할랄과 하람(비할랄) 매대도 구분된다.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는 2년 후 의류와 화장품에도 할랄 인증을 확대 적용한다. 인도네시아 외에도 무슬림계가 많은 싱가포르, 태국 등은 무슬림 친화적 여행지와 호텔에도 할랄 인증을 적용하고 있다.

할랄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그만큼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화장품 업계의 경우 아모레가 6월 이니스프리 브랜드의 20여개 제품과 해피바스 일부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았다. LG생활건강은 브랜드 피치오겔 제품 일부가 할랄 인증을 받아 판매 중이며 계면활성제 성분에 대한 할랄 인증을 받아 온산 공장에서 분리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인도네시아 연구소 내 향료랩을 신설하고 할랄 및 동남아시아 향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코스맥스 이노베이션 콘퍼런스 2024’를 성료

하고, 인도네시아 MZ세대 취향과 페르소나 무드에 맞춘 8가지 퍼퓸 키트를 소개했다.

코스맥스는 현지 고객사 대상 트렌드 소개 행사를 정례화하고 인도네시아 뷰티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도 확대할 방침이다.

패션업계를 살펴보면, 유니클로와 H&M 등 중저가 SPA 브랜드가 무슬림을 위한 의류 라인인 ‘모디스트 컬렉션’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모디스트 패션은 이슬람에서 문화적·종교적 신념에 따라 신체 노출을 최소화한 옷을 말한다. 얼굴, 팔 또는 다리를 가리는 옷이나 특정 색상과 패턴을 피하는 옷이 여기에 해당한다. 젊은 무슬림 여성들이 규율을 지키되, 개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모디스트 패션은 성장세를 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이슬람 국가에서도 할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할랄 시장이 그만큼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기업들도 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할랄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KGC인삼공사 ‘홍삼’ 혈당조절 기능 확인

공복·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감소 인슐린 저항성·당대사 조절 등 규명



KGC인삼공사는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통해 혈당 조절에 대한 홍삼의 효능, 기전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홍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을 공식 인정받았다. 이번 기능성은 KGC인삼공사의 R&D 기술력으로 홍삼 연구를 수행하여 식약처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KGC인삼공사는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통해 혈당 조절에 대한 홍삼의 효능, 기전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KGC인삼공사는 연구결과를 통해 홍삼을 섭취하면 공복혈당뿐만 아니라 식후혈당 및 당화혈색소가 감소된다는 점을 밝혔으며, 특히 GLP-1(혈당 조절 및 식욕 억제 관여 호르몬) 증가 등을 통한 인슐린 저항성 및 당대사 조절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혈당을 조절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KGC인삼공사는 혈당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건강 니즈를 반영하여 10월 중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지엘프로) 런칭과 동시에 혈당 관리 제품(GLPro 코어) 및 혈당·체지방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GLPro 더블컷) 등을 출시해 당뇨 케어 시장의 새 지평을 열 예정이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는 600만명을 넘어섰으며 당뇨병의 고위험군인 당뇨병 전 단계 인구는 1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뇨병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크며,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소 건강 관리를 통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원선 기자

홍삼에 대한 ‘혈당 조절’ 기능성은 향후 3년 간 KGC인삼공사 정관장에서만

“맥주·애니메이션 등 4개 팝업 즐기세요”

갤러리아百貨, 광고점서 한맥 팝업 31일까지 ‘핑크퐁’ 주제로 오픈

가을을 맞아 갤러리아백화점이 다채로운 팝업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수원 광고점은 18일부터 3일간 한맥 생맥주 시음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 팝업에선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크림 생맥주를 만들 수 있는 ‘한맥 스무스크림 거품기’와 ‘크림 서버’ 체험존을 마련했다.

오는 31일까지 인기 캐릭터 ‘핑크퐁’의 신작 애니메이션 방영을 기념한 핑크퐁 팝업스토어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캐릭터 상품 판매와 함께 핑크퐁 인형과의 기념 사진 이벤트, 아기 상어 라이더 체험도 제공한다.

팝업 기간 중 주말에는 핑크퐁 댄스 파티 행사가 진행된다. 대표 인기곡인 ‘아기 상어’ 등 동요 10곡으로 전문 출연진들이 공연을 선보인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 타임월드에서는 글로벌 브랜드 슈퍼썬스의 ‘사워바이츠 젤리카’ 팝업 행사를 연다. 사워바이츠는 슈퍼썬스의 젤리 상품으로 무지개 색의 컬러감과 상큼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지방 최초로 진행되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젤리카 팝업에는 차량과 조형물 전시를 비롯해 다채로운 포토존이 마련됐다. 현장 경품 이벤트와 무료 시식도 제공하며 오는 24일까지 식품관에서 사워바이츠 특별존을 마련해 상품 판매도 진행한다.

27일까지 국내 캐릭터 브랜드 ‘미스터두넛’ 팝업 스토어도 운영한다. 미스터두넛은 지치고 무기력한 현대 사회인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외부 광장에 2.5m 대형 캐릭터 별론과 조형물을 설치해 공간을 조성하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동서식품, 군산 월명동서 ‘맥심골목’ 운영

맥심 방앗간·슈퍼 등 6개 공간 구성

동서식품은 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전북 군산시 월명동에 ‘맥심골목’(Maxim Street)을 운영한다. 군산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색 있는 감성, 미식을 즐길 수 있어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여행지다.

맥심골목은 월명동의 로컬상점 5곳을 포함해 거리 전체를 맥심 테마의 골목으로 꾸며 걷기만 해도 맥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제품, 문화 콘텐츠를 모두 즐길 수 있다.

맥심골목은 ▲맥심방앗간 ▲맥심운세 ▲맥심슈퍼 ▲맥심놀이터 ▲맥심한의원 ▲맥심부동산 등 각각 특별한 콘셉트를 담은 6가지 공간으로 구성했다.

‘맥심방앗간’에서는 나만의 원두 커피 취향을 찾아보고 커피와 어울리는 다과를 함께 즐길 수 있다. 타로점을 콘셉트로 한 ‘맥심운세’에서는 맥심 티오피와 함께 신비로운 타로방 콘셉트의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다.

또한 맥심 커피믹스로 만든 한정 메뉴와 귀여운 장바구니 키링 만들기

즐길 수 있는 ‘맥심슈퍼’, 탁 트인 공간에서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맥심놀이터’, 커피 문진표를 작성하면 나에게 어울리는 맥심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맥심한의원’, 맥심의 브랜드 스토리를 체험하고 스탬프 이벤트를 통해 굿즈를 증정하는 ‘맥심부동산’ 등 다양한 공간 컨셉에 어울리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동서식품은 소비자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주도 ‘모카다방’을 시작으로 서울 성수동 ‘모카채방’, 부산 ‘모카사진관’, 전주 ‘모카우체국’, 서울 합정동 ‘모카라디오’ 등 다양한 콘셉트의 맥심 브랜드 체험 공간을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컬리 ‘향긋한 골든퀸현미밥’ 출시기념 25% 할인



CJ제일제당이 컬리와 함께 기획한 햇반 신제품 ‘향긋한 골든퀸현미밥(사진)’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지난해 7월 컬리와 공동으로 개발해 첫 컬리온리(Kurly Only)로 선보였던 ‘골든퀸쌀밥’의 후속작이다. CJ제일제당은 신제품 ‘골든퀸현미밥’을 통해 컬리×햇반 시리즈의 흥행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햇반 향긋한 골든퀸현미밥’ 역시 순수 국내 품종인 ‘골든퀸 3호’로 만들었

다. 골든퀸 3호는 갓 튀겨낸 팝콘처럼 구수한 향이 일품인 품종으로, 찰기가 뛰어나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여기에 CJ제일제당의 즉석밥 제조 기술을 더해 평소 현미 특유의 까슬한 식감이 불편했던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현미밥을 구현해냈다.

이번 신제품은 마켓컬리에서 단독 판매되며, 출시를 기념해 25% 할인 이벤트 등 소비자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중기중앙회, 쿠팡·홈쇼핑과 中企 판로·물류 지원

중企 판로확대 지원 위한 업무협약
우수 中企 발굴해 상품 개발하고
로켓배송 이용한 빠른배송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쿠팡, 홈쇼핑과 손잡고 중소기업 판로 개척, 물류 지원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쿠팡, 홈쇼핑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와 홈쇼핑은 우수 중소기업에 발굴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쿠팡은 홈쇼핑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에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쿠팡, 홈쇼핑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강한승 쿠팡 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문재수 홈쇼핑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고도 판로 개척과 배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홈쇼핑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의 판매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협력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쿠팡의 인프라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쿠팡은 유관 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수 홈쇼핑 대표도 "업무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와 쿠팡은 지난 2022년부터 '일사천리' (중소기업 판로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인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쿠팡 입점을 지원하는 '착한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쿠팡 물류센터에 중소기업을 초청해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상생협력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홈쇼핑에서도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우수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KCC, 프로농구 타이틀 스폰서 참여

KCC가 2024-2025 프로농구 타이틀 스폰서에 참여한다. 17일 KCC에 따르면 2024-2025 프로농구 대회는 오는 19일 시작해 6개월 간 대장정에 들어간다. KCC 정재훈 대표(왼쪽)가 KBL 이수광 총재와 프로농구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CC



경동원, '내화 단열 솔루션' 전시

경동원이 한국건축산업대전 2024(KAFF 2024)에 참가해 방화문, 세이프도어와 화재 안전성을 갖춘 샌드위치 패널, 세이프보드, 준불연 우레탄 단열재인 세이프보드와 세이프폼 등 내화 단열 솔루션을 전시한다. 올해 경동원은 '복합자재 품질인증'을 획득한 세이프패널을 선보인다. /경동원



'2024 LX배 한국여자야구대회'가 오는 19일 경기 이천 LG챔피언스파크 꿈의 구장에서 개막, 2주간 경기에 돌입한다. /LX그룹

'LX배 여자야구대회' 2주간 경기 돌입

여자야구연맹과 공동 주최·주관
41개팀 1000여명 선수 참가

'2024 LX배 한국여자야구대회'가 19일 개막해 2주간 열린 경기에 돌입한다.

17일 LX그룹에 따르면 한국여자야구연맹(WBAK)과 공동 주최·주관하는 2024 LX배 한국여자야구대회에는 총 41개 팀 1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경기도 이천시의 LG챔피언스파크 꿈의 구장에서 열리며 오는 19·20일 그리고 26·27일 주말경기로 치러진다.

경기는 챔프리그(상위리그) 16개 팀과 퓨처리그(하위리그) 25개 팀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27일 챔프리그 결승전과 함께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전 일정을 마무리한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챔프리그 개막전(19일) 및 결승전(27일) 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LX홀딩스 관계자는 "참가한 선수 모두가 높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여자야구가 대중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저변을 확대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X배 한국여자야구대회는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기업 후원의 국내 유일 여자야구 전국대회다.

LX그룹이 지난 2022년 새롭게 후원에 나서며 신설해 개최해 온 대회로 LG전자가 2012년 출범시켜 운영한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를 이은 것이다.

특히 야구 사랑이 각별한 구본준 LX그룹 회장의 지원에 힘입어 여타 국내 여자야구 대회와 달리 프로 구장에서 시합이 열리는 데다 후원 규모도 커 선수들의 지원 열기와 호응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회장은 매년 대회마다 경기현장을 직접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롯데호텔앤리조트, 요리재능기부 행사 성료

'요리를통한도시재생 사회협동조합'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요리를통한도시재생 사회협동조합'과 함께 '희망클래스 요리재능기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롯데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행사에는 청와대 국민행사 중식 부문을 담당했던 정순욱 셰프가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인 한우유니짜장과 마요새우를 선보였다. 셰프만의 비법이 담긴 레시피 전수는 물론,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막대 사탕 만들기, 마술시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게 롯데호텔앤리조트 측의 설명이다.

행사는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있는 쿠키 스튜디오 겸벽돌집에서 진행됐다.

'요리를통한도시재생 사회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나후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정순욱 셰프가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회현동 소재 쿠키 스튜디오 겸벽돌집에서 진행된 '희망클래스' 행사에 참여해 요리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모습. /롯데호텔앤리조트

는 데 초점을 둔 조합이다.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조합과의 협업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조합과 함께 '흙스워드 베이커리' 희망클래스를 진행한 바 있다. 희망클래스는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주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KSD나눔재단, 장애인단체 2곳 후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 16일 부산 본사에서 '사랑의 생필품 나눔 행사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장애인 단체 2곳에 후원금 총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복명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회장, 이 이사장, 정찬용 부산남구장애인협회 회장. /예탁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튜젠 유전자기술 도입

오가노이드 기반 체세포 재생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유전자교정 전문기업 튜젠과 'CRISPR-Cas9' 특허 기술 이전(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튜젠과의 협력으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암, 유전 질환, 면역 질환 등 연구에 적용 가능한 오가노이드 기반 질병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산업은행, '임직원 헌혈캠페인' 실시

산업은행이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2024년 임직원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은행 임직원 120여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기증된 헌혈증서는 혈액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아암 환자 등을 위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산업은행

한신대, 오산시와 SW 인력양성 '맞손'

세교AI마이스터고 인재양성협력체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오산시(시장 이권재), 오산대(총장 허남운)와 16일 오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세교AI마이스터고 인재양성협력체' 업무협약 및 출범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한신대와 오산시, 오산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교AI마이스터고 인재

양성협력체 운영 및 협력 ▲세교AI마이스터고 설립 추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및 협력 ▲전문가 자문 및 설립 지원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협력 ▲세교AI마이스터고의 성공적 지정을 위한 공동 협력 등 세교AI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설립과 인재양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체결했다. /이현진 기자 lhj@

부음

▲ 신봉옥(6·25 참전 화랑무공훈장 수훈자) 씨 별세, 오수환씨 남편상, 신규택(세계일보 총무국장)씨 부친상 = 17일 오전 5시 50분, 대구호병원 장례식장 102호실(18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0일 오전 9시,

장지 국립영천초국원. 053-625-4466 ▲ 김규환씨 별세, 이명자씨 남편상, 김대은·김태호(전 국제청 차장)·김태우씨 부친상, 허연·이유정씨 시부상 = 16일 오후 5시 47분,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VIP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장지 부산관동추모공원. 051-550-9990

오늘의 날씨

10월 18일 (금)
음력 : 9월 16일

수도권 날씨
16~2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43 | 해질 / 17:51


연천 12/20, 동두천 13/19, 가평 12/19, 파주 13/19, 서울 16/20, 양평 14/20, 인천 17/20, 수원 17/20, 용인 17/20, 평택 16/23, 백령도 17/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2

2024 제약 · 바이오 포럼

2024. 10. 23 (수)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행사명 : 2024제약&바이오포럼
 -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제 :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 강연 :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기조강연)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최진식 그라스메디 대표이사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이사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 대표
임운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원장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4 제약 · 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Ria's BURGER ART MUSEUM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33
2024.10.03-10.20

시간이 빚어낸 샴페인 팔머... “한국, 기대되는 시장”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레미 베르비에 샴페인 팔머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몽타뉴 드 랑스 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영FBC

식전주부터 시작해 가벼운 전채요리는 물론 육류를 주재료로 한 메인요리와 디저트까지 매 코스마다 샴페인이 등장했다. 완벽한 페어링이었는데 참석자들은 모두 놀라고 말했다. 알고보니 각 코스마다 내놓은 게 사실은 같은 샴페인이어서다. 프랑스 샴페인 하우스 팔머가 좋은 해에만 만든다는 빈티지 샴페인 그랑 페루아 2003빈티지를 선보일 당시의 일화다.

“좋은 와인은 좋은 와인이다(Good wine is good wine).”

레미 베르비에 샴페인 팔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샴페인은 와인 중에서도 가장 다재다능(versatile)하다”며 “팔머 샴페

인은 신선함과 자연스러운 힘, 복합미로 어느 장소든,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소믈리에 디너에서도 디저트까지 모든 코스에 와인인 샴페인으로만 매칭토록 했다.

샴페인 팔머는 지난 1947년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7명의 포도 생산자들

이 최고의 샴페인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곳이다.

샴페인 팔머를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한다면 ‘시간’과 ‘균형’이다.

먼저 시간이다. 시간은 팔머가 샴페인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다. 모든 샴페인이 법으로 정한 규

정이나 일반적인 샴페인들보다 2배 이상 숙성 기간이 길다.

베르비에 대표는 “시간은 와인을 연마한다. 샴페인에 시간이 입혀지면서 과실과 꿀 등의 기본적인 샴페인 아로마에 초콜릿과 커피까지 복합미가 생기고, 입안에서는 공격적이었던 산도가 신선하고 우아해진다”고 설명했다.

논빈티지는 최소 3년 동안 숙성하고, 빈티지 샴페인은 무려 6~8년 동안 오랜 시간 효모 침전물과 함께 천천히 숙성한다.

다음은 균형이다. 얼마의 시간을 들이더라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궁극의 균형이다. 1947년에 설립됐으니 70년이 넘었지만 이 목표는 변함이 없다.

베르비에 대표는 “팔머에서는 설립 이후 양조해 저장한 모든 빈티지의 쿼터를 2년마다 모두 테이스팅한다. 신선함과 복합미, 강도까지 어느 것 하나 튀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스타일 면에서는 어떤 빈티지를 맛봐도 똑같다”고 전했다.

‘샴페인 팔머 라리저브’는 팔머 스타일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와인이다. 꽃향기와 잘 익은 과일, 고소한 토스트향까지 복합적이고, 신선해 마시기 쉬우면서 여운은 길다.

‘샴페인 팔머 로제 솔레라’는 솔레라 방식을 적용한 유일한 로제 샴페인이다. 솔레라는 오래된 와인에서 일부를 빼서 쓰고 그만큼을 새로 만든 해의 와인으로 채우는 작업을 말한다. 깊은 복합미와 신선함을 동시에 갖췄고, 혼연과 향신료향까지 인상적이다. 공을 들인 만큼 평가도 좋다. 국제주류품평회인 IWSC에서 로제로는 가장 높은 점수인 98점을 받았다.

한국 와인 시장에 대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소비자들은 와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샴페인 하우스 입장에서 한국 프리미엄 샴페인의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국가”라고 말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생생한 묘사로 풀어낸 잊을 수 없는 이야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소설을 원서로 읽는 기쁨을 만끽하고자 책장에 꽂혀 있던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집어 들었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주하기 두려워 회피해왔던 슬픔과 한의 정서를 절절히 느끼게 됐다. 작가가 책에서 다룬 이야기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5·18 민주화 항쟁을 경험한 시민들의 입을 통해 당시의 참혹한 현장을 생생히 묘사해낸다.

‘소년이 온다’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모두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이야기다.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생이별하게 된 가족과 친지, 친구의 생사를 몰라 애틀 애틀하고, 누군가는 그날 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 애쓰며, 어떤 이는 진실을 전제 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작가는 동호의 이야기로 소설을 연다. 그는 친구가 군인들이 쏜 총을 맞았다는 말을 듣고 도청 상무관에 단장을 찾으러 갔다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을 돕게 된다. 상무관 출입구 탁자 앞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죽은 사람의 이름과 일련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식육절 경지에 큼직하게 옮겨 적던 동호의 앞에 밤색 두루마기 차림의 노인이 나타난다. 누구를 찾아 왔느냐 그의 물음에 노인은 이가 빠져 불분명한 발음으로 “우리 아들하고 친네.”라고 답한다.

노인은 화순에서 군인들 안 지키는 산길을 겨우겨우 넘어왔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입가의 희고 성근 터럭들에 회색 침방울이 맺히는 걸 보며 동호는 생각한다. 평지도 잘 걷지 못하는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산을 넘어온 걸까.

“우리 막둥이는, 병어리여... 어려서 열병을 앓아서 말을 못해. 엇그저께 광주서 내려온 사



소년이 온다
한강 지음/창비

람이 그란디, 시내에서 군인들이 병어리를 곤봉으로 두드려 죽었다고, 벌써 오래되었다고 그래서. 글고 우리 큰아들네 친네는 전대 앞에서 자취함서 학교 망킨디. 엇저녁에 집에 가본게 행방불명이라여.”

동호는 노인을 시신 더미 앞으로 데려가 피와 진물로 꾸덕꾸덕 얼룩진 흰 무명천을 들춘다. 꾸깃한 가제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앞서 걸어간 노인은 흰 천 위로 드러난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체머리를 흔든다.

곤봉으로 맞아 오른쪽 두개골이 움푹 함몰돼 뇌수가 보이는 젊은 여성, 깊은 갈자국에 얼굴이 벌어져 이목구비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신, 왼쪽 가슴과 옆구리에 수차례 대검으로 그른 자상이 난 시신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침묵하며 누워 있는 사람들과 지독한 시위. 이승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꿈적거리는 노인의 두 눈을 보며 너는 다짐한다. “아무 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216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부의 제한선

1960년대 인도보다 소득이 낮았던 대한민국은 현재 백만장자의 수가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나라로 성장했다. 허나 한국은 여느 선진국 이상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인 53.3%를, 상위 1%는 전체 부의 22.3%를 거머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가난에만 주목하고 부의 제한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걸

까. 저자는 안전판이 부실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극단적인 경쟁만 지속된다면 필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양극화 시대의 대안으로 ‘부의 제한주의’를 제안한다. 책은 부의 극단적 집중화는 사회의 응집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지속 가능성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416쪽. 2만2000원.



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김승진 옮김/세종서적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시작한 미국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중동의 골리앗을 두둔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미국은 ‘국경 정책 강화’, ‘이스라엘에 지속적인 안보 지원’을 내걸며 치열한 대선 전쟁을 펼치는 중이다. 허나 이스라엘은 미국의 휴전 촉구를 거부하며 헤즈볼라를 공격해 중동 위기관

리 문제의 변수로 떠올랐다. 이스라엘의 행위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방파막이 된 민간인들이다. 저자들은 미국의 중동 정책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대표적인 극우 국가로 변모시켰다고 평가한다. 미국 내 정책을 친이스라엘 방향으로 이끄는 로비 이익집단이 자유 국가 미국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까발리는 책.

508쪽. 2만4000원.



존 J. 미어사이어, 스티븐 M. 윌트 지음/김용환 옮김/크레타

불안을 철학하다

불안은 살아있는 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책은 필멸의 고통을 실존의 용기로 승화한 철학자들의 사례를 통해 불안과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알려준다. 불안을 철학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단순히 불안에 반응하고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닌, 불안을 생각하고 반추한다는 의미다. 불안을 철학적 사유의 중심에 놓고 고찰한 붓다는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

한 마음을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 비롯된 고통으로 본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불안을 떠안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며, 불안과의 투쟁을 기꺼이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물론을 창안한 카를 마르크스는 사회·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삶에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288쪽. 2만원.



사미르 초프라 지음/조민호 옮김/안타레스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젤렌스키 “러시아에 北인력 지원 확인...사실상 참전”
▲ 다급한 해리스 중도보수 구애...트럼프, 히스패닉까지 공략 /사진 뉴시스

▲ 현대차 인도법인 IPO에 미지근한 반응...이틀째 청약률 42%
▲ 대만 TSMC, 3분기 순익 약 14조원...전년 대비 54% 급증



▲ 경제핵심 부동산 살려라...中 “자금난 업체 대출 340조원 추가”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사진 뉴시스

도심 속 자연 품은 마천루... 나만의 오아시스

아파트의 미학(美學)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최근 찾아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붉은색의 '힐스테이트' 로고가 도드라진 정문은 넓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 5월말 입주를 시작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인근에 인천예술초, 송일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가 오는 2025년 8월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에는 랜드마크시티3호수공원, 송도센트럴파크 등이 있어 입주민들이 쾌적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아파트 단지는 지하 5층~지상 59층, 4개동, 총 1205세대 규모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114㎡▲115㎡▲139㎡▲162㎡▲214㎡▲217㎡▲237㎡▲238㎡로 구성됐다.

단지는 신축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송도 경관의 최종심지인 워터프론트 호수에 위치하며 외벽을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유리 외장재를 추가하는 커튼월 록 방식이 아닌 외벽 전체를 유리 외장재로 마감하는 커튼월 방식으로 지어졌다. 세대 통창 옵션이 분양 후에 적용돼 인천대교, 워터프론트 호수를 더 크게 조망할 수 있게 됐다.

단지에는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세 개의 조각상은 단지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조각상 '행복한 가족'은 행복이란 사소한 일상 속에서 보석보다 빛나고 가치가 있다는 평범한 진실을 표현해냈다. 경쾌한 컬러는 입주민들에게 분위기가 밝고 유쾌한 상상의 공간을 제공한다. 옆에는 단지 내 어린이집인 '국립송도더스카이어린이집'과 놀이터 '버블오브젝트'가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품다'라는 작품도 인상적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안아주고자 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 조각상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가끔은 대립하지만 결국은 이웃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스페이스-트레이스-포지션'은 공간과 선율의 조화를 표현한 작품이다. 생동감물성과 공간해석에 대한 관계성을 이뤄 조형화한 조각상이다. 단지 내에 연못, 산책로, 분수대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인락한 분위기도 제공하고 있다.

호수공원과 근린공원을 조망해 휴식하는 열린 정원공간 '오브제라운지필드'는 티하우스와 결합된 선형연못이다. 공간의 경관을 강조한 공간이다.

'블루오브제라운지'는 인천타워대로와 인접한 보행출입구에 수목식재로 단지의 입구를 고급화한 곳이다. 옆에는 놀이터 '웨이브 화이트베어'가 있어 과도와 곰인형을 형상화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고층 단지답게 탁트인 뷰를 관람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계단오르기', '구름사다리' 등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는 피트니스존도 마련돼 있다.

/글·사진=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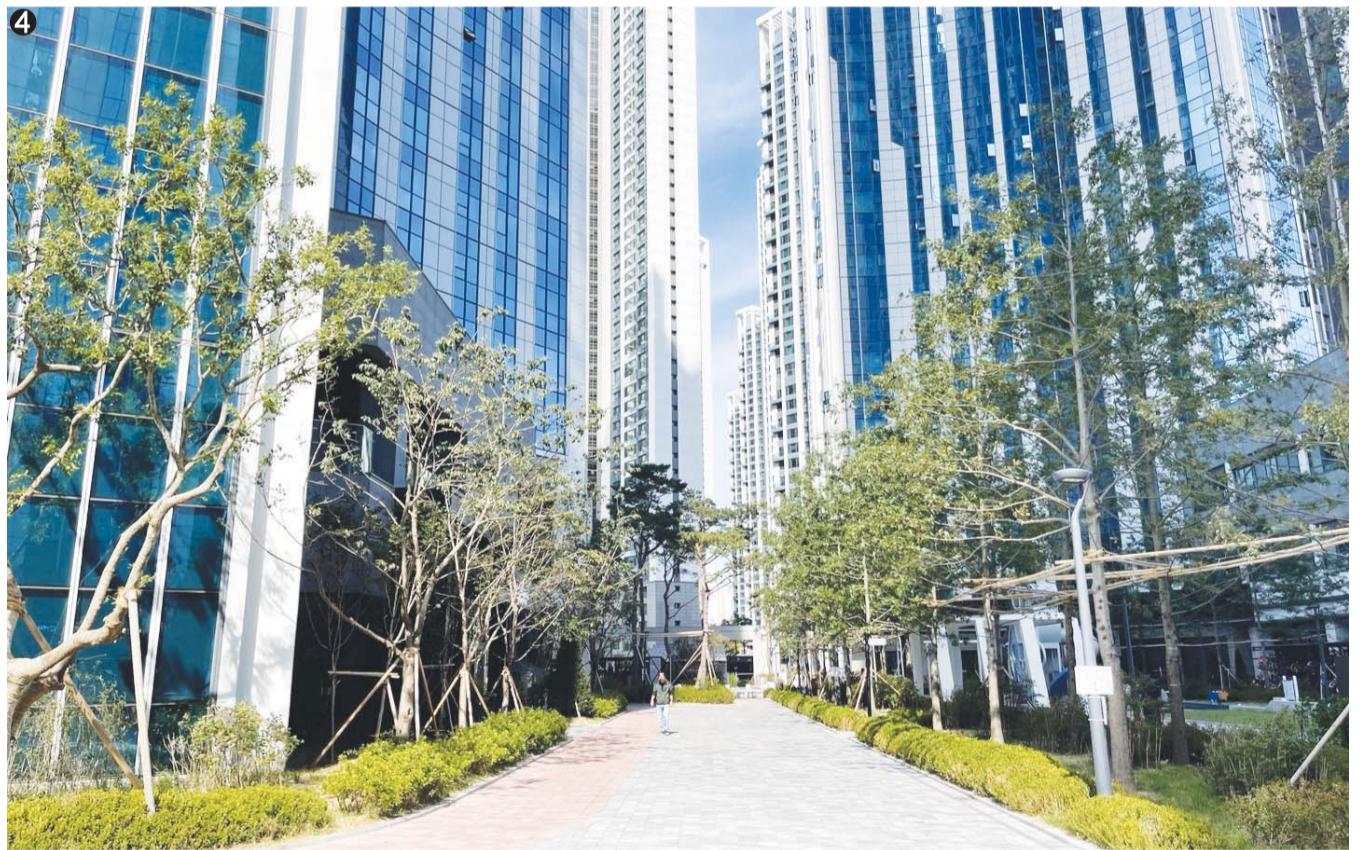
- ①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 ② 스페이스-트레이스-포지션
- ③ 품다 조각상
- ④ 소나무가 조성된 단지 내 산책로
- ⑤ 피트니스존
- ⑥ 단지 내 조경시설



국제업무지구역 초역세권 교통
송도센트럴파크·호수공원 인접
인천대교·워터프론트 호수 조망

어린이집·놀이터 등 가족 친화적
티하우스·선형연못 등 힐링 공간

스카이라운지 등 프리미엄 시설
고급화된 보행출입구와 자연 조경





식품 이어
뷰티·패션도
무슬림 공략
니



Life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쿠팡·홈쇼핑과
중소지원
L2

졸음 번쩍 집중 반짝 차에서도 책상에서도 “껌이라면 역시~”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롯데웰푸드 ‘졸음번쩍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껌 시장 회복세
졸음번쩍껌 판매비중 16%까지 상승
천연카페인 과라나추출물, 멘톨 함유

수험생, 운전자, 야간근무자 등 졸음을 쫓아야 하는 소비자를 위해 2014년 출시된 롯데웰푸드의 ‘졸음 번쩍껌’은 시장 상황이나 유행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히트상품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체적으로 유통 시장이 침체됐던 2019년을 포함해 껌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현재까지 매년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5년 전에 비해 2.5배 늘어났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1%의 매출 신장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롯데껌 안에서 판매 비중도 크게 늘었다. 2019년 전체의 5% 수준이었던 졸음번쩍껌 판매 비중은 올해 상반기 16%까지 상승하며 자일리톨과 함께 대표 효능껌으로 자리매김했다. 온라인 채널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미뤄볼 때, 졸음을 쫓으려는 목적성 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졸음번쩍껌에는 과라나추출분말이 들어가는데, 과라나에는 천연카페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껌을 씹으면 천연카페인과 구강 점막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며 휘산 작용(액체를 기체화시켜 날아가게 해주는 현상)을 통해 시원한 느낌을 주는 멘톨이 함유돼, 강렬한 맛과 향이 뇌를 자극해 정신을 맑게 해준다. 멘톨은 많은 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맛과 향외에도 씹는 행위 자체도 잠을 깨게 하는 요인이다. 껌을 씹는 것만으로도 얼굴과 머리 쪽의 혈류가 증가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며, 삼차신경을 자극해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집중력·주의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롯데웰푸드는 관련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8월 신제품 ‘졸음번쩍 에너지껌’을 출시했다. 자극적인 맛은 줄이고, 효능은 높여 공부와 자기 계발로 바쁜 1030세대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과라나추출물, 타우린 등 신체 에너지 증진에 도움 되는 성분을 기존 제품(졸음번쩍껌 울트라파워) 대비 3배 높이고 비타민B6를 추가로 더했으며 멘톨향, 민트향 등을 사용한 휘산작용은 유지해 효과적으로 졸음을 쫓을 수 있다. 바둑알 모양의 코팅껌으로 개인이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어 위에 부담이 적고, 설탕을 함유하지 않아 당 걱정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이번 출시로 ▲졸음번쩍껌 오리지널 ▲졸음번쩍



롯데웰푸드 임직원들이 죽암휴게소에서 졸음운전방지를 위해 이용객들에게 졸음번쩍껌 등을 나누어주고 있다.



롯데웰푸드가 부산항만공사(BPA)와 함께 ‘잠 깨!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활력증진성분 3배 높인 ‘에너지껌’
공부 등 일상생활에서도 부담없이
섭취량 조절, 슈가프리로 당 걱정 ‘0’

귀성·귀경길 껌 나눔, 안전캠페인 등
졸음운전 예방 관련 사회공헌활동

껌 울트라파워 ▲졸음번쩍 에너지껌까지 전체 3종을 운영하게 됐다.

껌의 맛과 제품 패키지에서도 젊은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했다. 공부, 업무 등 일상생활 중에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맛의 자극은 줄이되 쿨링감은 오래 지속되도록 했다. 껌 한 알 당 크기도 1.5g에서 2.3g으로 커졌다. 제품 로고에 번개 모양을 적용해 ‘에너지’ 콘셉트를 귀엽고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졸음번쩍 에너지껌 출시로 더욱 폭넓은 연령대의 소비자 입맛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졸음운전 예방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특히 명절기간에는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손잡고 졸음운전방지 껌 씹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롯데웰푸드의 졸음운전방지 껌 씹기 캠페인은 명절 연휴 및 나들이철 등 차량 운행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운전자들이 운전 중 졸지 않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졸음번쩍껌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다. 2013년부터 12년째 이어진 행사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휴게소를 방문한 귀성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함께 졸음번쩍껌과 자일리톨 그리고 손난로 등을 나눠준다.

지난 7월에는 부산항만공사(BPA)와 졸음운전방지 안전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안전캠페인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BPA 희망공간’을 매개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등에도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MOU는 지난 4월 향만이용자를 대상으로 ‘부산항의 잠자는 안전의식을 깨우자’는 의미를 담은 졸음운전방지 캠페인을 진행한 후 이를 확대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뤄진 것이다.

협약에 따라 롯데웰푸드는 매년 졸음운전방지를 위한 졸음번쩍껌과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위한 제과류를 1억여원씩 3년간 부산항만공사에 후원한다. 부산항만공사는 ‘BPA 희망공간’이라는 부산항 인근지역에 설치한 나눔냉장고를 통해 롯데웰푸드의 후원물품을 활용한 따뜻한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수면 부족 현상이 직장인에서 학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졸음번쩍껌의 인기가 지속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제품 라인업 확대 및 마케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황선우, 혼계영 400m 금메달...전국 체전 5관왕 등극 /사진 뉴시스
▲“韓 공격수 4년 구형”...英 외신들 향의 조 불법촬영 사건 ‘조명’

▲전국체전, 성남시청·한국체대, 하키 남녀 일반부 우승
▲‘김민재 스승’ 투헬 감독,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 부임



▲여자농구 2024~2025시즌 MVP는 김단비...팬 등 설문조사 /사진 뉴시스
▲女배구 흥국생명, 김세영 멘털·기술 코치 영입...“선수들 정신적 멘토”